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15일)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자살예방 종책 조사로 불자 맞춤 솔루션 제시

[진단] 불교생명존중운동 활동 과제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부와 불교계가 본격적인 자살예방 사업에 나선 가운데, 자살을 비롯한 생명존중, 인식에 대한 종책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7월 25일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9월 8일 서울 봉은사, 10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생명살림 법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자살예방 활동의 본격 진행을 의미한다.

이번 3차례의 생명살림법회는 명상 수행과 접합해 일반 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비희사를 활용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심 발현과 생명 고귀함을 찬탄하는 사무량심 명상법회와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염불법회, 천천히 걷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상태를 알아차려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걷기명상 법회 등으로 테마를 잡아 진행된다. 참여 예상인원은 약 2400여 명으로 법회 현장에서는 생명존중 리플릿 배부와 생명서약서 작성 등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국내 자살자 현황은 심각하다. 2017년 OECD자료를 보면 13년째 1위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 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다.

불교계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자살예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불교상담개발원을 단일창구로 하여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 세미나와 생명존중 법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살유가족 템플스테이와 종교의식,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10일에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 등 전국 20여 사찰에서 일제히 생명살림법회를 열었으며, 올해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주최 한강 명상걷기대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2016년 불교파이널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와 함께 웰다잉 문화 접근에 대한 기본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불자들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자살충동 여부나 우울증 등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

선업 스님은 "시계열 분석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이뤄져 축적이 되어야 하기에 일선 기관에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자살예방 활동에 나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 경전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쉬운 만큼 경전에 의거한 원론적인 접근보다 불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상담개발원 생명살림법회 시작
조계 · 봉은 · 범어사 순회 봉행
자살예방센터 건립 등 추진도

정작 불자들 인식 조사 전무해
노령화 따른 면밀한 접근 절실

있는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주임교수는 "불자들의 경우 윤회 사상으로 죽음에 대해 비종교인과는 정서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독사가 많은 상황에서 고령인 불자들이 황혼기에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등 기초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자살자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황혼자살, 고독사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불교계도 불자 노령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불교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불교계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사업 일환으로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 중이다. 7월 29일 총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며 선정 프로그램은 운영비 지원 및 결과보고서 발간이 이뤄진다.



"지계의 삶 살겠습니다"

부산 불자 2000여 명이 모여 지계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계를 만나는 것을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다"고 계를 수지한 공덕에 대해 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적 책무 어긴 MBC 왜곡보도"

조계종, 조계 · 봉은사 시설 MBC 의혹 제기에 반박

각 사찰 자부담 50~60% 넘고
용도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MBC가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템플스테이 예산을 받아 짓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조계종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MBC에 정정 · 사과보도를 요청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MBC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조계사 안심당 및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한 보도는 다수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7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먼저 시설건립 예산과 관련해 안심당과 전통문화체험관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조계종은 "MBC는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이 마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예산인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두 건물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전혀 무관한 별도의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밝혔다.

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사 안심당은 2008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조계사 자부담 40여억 원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은 2017년 문체부 관광기금 20억 원 및 지방비 등 43억 원과 봉은사 자부담 46억 7000만원 등이 투입됐다.

앞서 MBC는 안심당이 문체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봉은사 건물이 문체부에서 43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계종은 이어 두 건물이 체험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MBC보도에 "건립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일부 공간을 지도법사 수행처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안심당은 행자부 예산 신청 당시 1층은 스님들의 수행처소로, 지하층은 사회사업 사무실로 계획했다. 현재 지하층에는 '일자리 나눔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학생들이 모여 만드는 '우리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자퇴청소년을 보듬는 사업을 실시했다. 지상 3층 교육관 역시 간화선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현재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건립계획 당시 체험관 1동은 관리 및 숙소동으로, 체험관 2동은 체험 중심으로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50%를 넘는 자부담을 고려해 봉은사 경내에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던 시설을 체험관에 우선 배치하는 계획서도 제출했다.

조계종은 이뿐만 아니라 "MBC는 조계사와 봉은사가 각 건물 건립에 50~60%를 상회하는 자부담 예산을 투입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건립비용 전액를 국고보조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거스르는 잘못된 보도행위다. MBC의 진정어린 사과와 빠른 시일 내 정정 및 사과보도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범위 확대된다

포교원 입법개정 예고… 타종단 문호 개방

조계종 포교대상의 수상자 폭이 확대된다. 불법홍포에 나선 불자라면 누구라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대상 공적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며, 후보자격은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 공로상 공적기간은 10년에서 5년,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취지에서 포교 활동에 나선 이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의 폭이 대폭 넓어진다. 다만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추천과정 또한 변경된다. 기존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조계종 소속 신도단체 및 포교단체 대표자 추천에서 일반추천으로 변경되며 추천분야도 계층, 직능, 문화체육 등으로 다양해진다.

포교원 측은 "그동안 포교현장에서 앞장서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욱 열심히 포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국인을 위한 2019년도
maumtour.com 웹사이트에서 상세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 : 11월 4일-6일(3일간)
주 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 법회 행사는 보시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11/1 출발 달라이라마 법문 8일 ------ 230만원
B 11/2 출발 법문 + 델리관광 8일 ------ 230만원
C 11/2 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280만원
D 10/31 출발 법문과 인도 성지 15일 ---- 310만원
E 11/2 출발 법문과 부탄 순례 11일 ---- 410만원

황금빛 불탑의 나라 특가
미얀마 성지순례 7일
9월 21일 출발 ~ 9월 27일 도착
178 만원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구법의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돈황 10일
9월 20일 출발 / 10월 10일 출발 259 만원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15명 이상 인솔자 동행

조계종 제8기 법계위원장에 무관 스님

입적한 종진 스님 후임으로 7월 10일 선출



지난 4월 30일 입적한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후임으로 무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회의를 열고, 제8기 위원장으로 무관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무관 스님은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4월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종사법계를 품수했다.

무관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임원과 단일계단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 전계3사,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아사리,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의제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계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중진 "편백운 총무원서 나가라"

원로회의·중앙종회 등 前집행부 비판 결의문 채택

"종헌종법에 의거한 적법절차에 따라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은 즉각 총무원사에서 퇴거하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출에도 전임집행부가 총무원사를 비우지 않은 채 폐쇄 입장을 취하자 종단 원로 등 중진스님들이 전임자들의 퇴거를 촉구했다.

태고종 원로·중진스님들 150여 명은 7월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태고종 종단 원로 중진 간부스님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출범한 27대 집행부를 지지하는 한편 제26대 집행부의 원만한 퇴진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중앙종회, 호법원, 지역종무원, 각급 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종단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현안 타개를 논의하는 허심탄회한 자리"라며 "태고종의 본래면목을 되찾고 새로운 종단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힘과 원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이와 함께 정상적인 종무집행을 위해 임명한 부장단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임명된 부장은 총 4명으로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재경부장 진성 스님, 규정부장 법해 스님이다.

참석 대중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편백운 집행부에 △총무원사 퇴거 △종도들에게 참회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은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을 선출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총무원장이 종단 사태를 잘 수습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편백운 스님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총무원청사를 폐쇄한 채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편백운 스님의 농단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하반기 일정 시작

강좌·순례형 등 교육 '다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승려연수교육 하반기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연수 교육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자원봉사활동 △인증교육 연수 △강좌·순례형 연수로 나눠 진행된다.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은 24곳이 전법교화활동을 이어간다.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교구본사 산하시설 등 총 191개 기관에서 시행하며, 인증교육 연수는 43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강좌형·순례형 연수는 24개 과정이 이뤄진다. 인문사회과정 중 '환경·생태문제에 불교에 답하다'는 장소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또한 30년차 이상의 종사·명덕스님들을 위한 '종단최고지도자특별과정'도 지난해에 이어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이젠 해외서 먼저 찾는 한국불교문화"

불교문화사업단 해외홍보 15년… 전 세계 감동 확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본격적인 해외홍보에 나선지 15년을 맞았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찾는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구권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지역을 넓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7월 9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년간의 홍보성과와 올해 하반기 계획 등을 이 같이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2005년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첫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국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했다. 특히 해외홍보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사찰음식의 날' 행사로 평가된다. 당시 여행업계 관계자와 정관계·문화계 인사, 유명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설명회와 사찰음식 강연 등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대거 참여, 한국불교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후 문화사업단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각종 홍보행사를 이어왔다.

원경 스님은 "처음 해외홍보에 나섰을 때는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먼저 우리에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내던 쪽에서 이제는 받는 쪽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베를린 관광박람회부터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우수성
16개국 30여 차례 걸쳐 홍보
최근엔 아시아권 홍보에 주력

이처럼 문화사업단은 각종 국제여행박람회와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사찰음식 만찬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인지도를 쌓았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사찰음식 만찬행사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갑자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수미 씨의 참석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지난 5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열린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홍보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제공=불교문화사업단**

조수미 씨는 사찰음식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서 "8년 전부터 채식을 하고 있다. 낙원처럼 매혹적인 사찰음식을 맛보게 돼 영광"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해외홍보 행사를 계획 중이다. 9월 말에는 미국 LA에서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진행하고, 'LA한인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현지 조리교육기관에서 사찰음식 강의도 열릴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10월 한국문화제'에 참가해 발우공양 워크숍과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원경 스님은 "아시아국가는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호감이 생기면 곧바로 관광을 온다. 이 점이 서구권과 가장 큰 차이"라며 "각 국가에 한국불교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지문화에 맞는 홍보방법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는 본래 해외에서 더욱 주목한 콘텐츠다. 해외홍보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대비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외부기관의 평가도 긍정적"이라며 "불교와 사찰음식이 가진 메시지도 각광받는다. 음식을 먹는 과정도 수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한국불교문화가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혁신과제 도출 '시동'

화합혁신위 기획위원 위촉
라운드 테이블 토론 나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에 조계종이 나섰다.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는 7월 10일 서울 북촌 포레스트구구에서 16명의 출·재가 기획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출범에 앞서 '전환의 시대,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획위원으로는 11명의 출가자와 5명의 재가자가 이름을 올렸다. 출가자는 △도선 스님(안산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명법 스님(화엄탑사 주지) △법원 스님(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일감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 △화평 스님(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효진 스님(반야정사 주지)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며, 재가자는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이성운 의례실무위원회 위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다.



7월 10일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출재가 인사들.

이날 기획위원들은 첫 일정으로 불교사회연구소의 '통계로 본 불교' 내용을 공유하고, 각자 위원별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서 위원들은 승가공동체 회복과 불법(佛法)의 현대화, 포교체계 재정비, 재정투명성 강화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획위원 도선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제3의 종교로 뒤처지고 있다"며 "시대에 맞는 승가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언어로 표현하면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재영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상, 달라진 종교지형 등을 정리해 현대적 교판의 정립을 해야 한다. 계율의 혁신과 현대화도 마찬가지"라며 "승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재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때 전환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획위원들은 발제에 이어 △시대와 함께하는 교리 및 의례 △현대 승가공동체의 구현 △재가의 교육, 수행, 조직 △종단과 사찰 운영 △사회정의 실천 등 5개 분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계획을 세웠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는 7월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연말까지 한국불교 혁신과제를 도출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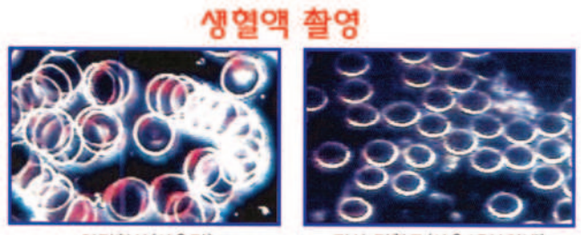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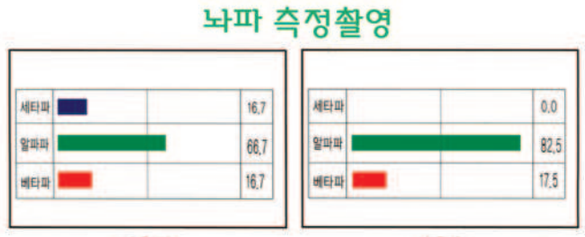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제주4.3 불교 희생자 추모 본격화

관음사,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발족

오는 19일 창립총회 및 법회
사찰 피해 · 스님들 희생 조명
불교 차원 사업회 발족 처음
희생자 위령 · 피해 조사 추진
유적 보존 · 역사교실 운영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4.3항쟁 당시 희생된 스님들을 추모하고 사찰 피해 상황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는 7월 19일 오후 3시 관음사 선센터에서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창립총회 및 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과 임원 구성, 사업계획들이 확정된다.

이번 사업회 창립은 제주 4.3항쟁 당시 불교계 피해 조사와 희생자 추모를 위한 첫 법인단체의 발족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민중 봉기 및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약 7년여 동안 비공식적으로 약 3만여 제주주민이 희생됐고, 강경진압에 의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경우 기옥 95%가 전소됐다.

이런 겁화를 불교도 피해가지는 못했다. 스님 16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37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완전 전소된 곳도 18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을 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은 스님도 있다.

특히 스님들의 희생은 막 태동하고 있던 제주불교계로서는 뼈아픈 손실이었다. 당시 제주불교를 대표한 승려인 이일선은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정동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서 수장됐다.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은 1948년부터 민중들과 함께 무장대로 활동했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관음사서 기거하며 활동했는데 군 · 경 토벌대에 잡혀 1949년 7월 산지 앞바다서 수장됐다.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제주 순회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이성봉 스님은 1949년 10월 자신이 주석하던 금봉사로 피신 온 마을주민들을 숨겨주다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됐다.

이들 스님 대부분은 해방 이후 친일불교를 청산하고 불교를 개혁하고자 했으며 사실상 제주불교계의 지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주 4.3항쟁 당시 종교계 피해 중 90%가량이 불교에 집중돼 있었지만, 사찰 피해와 스님의 희생은 크게 조명되지 못했다.

이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지난 3월 30일 봉행된 관음사 4.3희생자 추모제 이후 사업회 창립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4월 3일 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이 착수됐다. 5월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회의와 6월 창립발기인 회의 등이 잇달아 열리며 사업회 창립 준비에 매진했다.

사업회는 4.3 당시 최대 격전지이기도 했던 관음사를 중심으로 각 종단 · 사찰 · 신행단체 ·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4.3 희생자 추모와 피해 조사를 위한 범불교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사업회는 희생자 조사 · 명예회복과 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희생자 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기초 자료 수집 · 자료 전산화 · 신고 창구 상설화 등을 추진한다. 희생자 위령 · 추모사업으로는 △년1회 합동위령재 △년1회 순교 스님 위령재 △4.3 천도 축원 생활화 △유적지 위령비 건립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4.3 유적지 가치 보존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된다. 유적지 가치 보존 위한 연구 용역 및 정비가 추진되며 유적지 지정 등록을 위한 사유지 매입도 계획 중이다.

또한 인권 · 평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청소년 역사교실을 운영하며, 유적지 참배 대중화를 위한 순례길과 관광벨트 조성도 추진된다.

희생 유족 복지와 유족회 활성화를 위해 △추모법회 활성화 △어려운 희생자(유족) 돕기 운동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 상담센터 운영 △4.3불자 유족상 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제주는 4.3으로 인해 많은 도민과 불자, 스님들이 희생됐으며 사찰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불교 관련 피해 조사와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업회 창립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피해를 진상 조사 · 규명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의 공동체로의 제주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족 불교지도자과정 수강생 모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남북불교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7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강생을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7기 과정은 8월 1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1일과 28일, 9월 4일과 19일에 통일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를 주제로 4번의 강좌가 진행된다. 강의서는 서호 통일부차관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망과 과제', 이종석 前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동기와 북한 경제', 정세현 前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마지막 강의서는 '시대정신으로 평화통일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토론회가 펼쳐진다.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는 9월 21~24일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연길-용정-백두산-왕청-도문 등) 순례가 이어진다. 순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만주지역 항일운동 현장을 방문하는 코스로 마련됐으며, 신청자 중 선정된 수료생이 참여할 수 있다. (02)720-0531 윤호섭 기자

전국비구니회 첫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7월 27일, 17개 지회 함께 장병 4000명 대상

'절오빠 프로젝트' 추진해
후원금만 4000만원 모연
회장 육문 스님 법사 나서

비구니스님들의 공식기구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군불교의 산실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주관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오는 7월 27일 오후 2시 30분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17개 지회와 함께 군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계법회는 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의 임기 말미에 회향의 의미를 담아 준비한 것으로, 비구니회가 40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이는 호국연무사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여법한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절오빠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비구니스님들의 모연을 실시했다.

모연에는 17개 지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비구니스님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표액인 2400만원을 훨씬 웃도는 4000만원이 모연됐다. 이에 비구니회는 연무사 기본간식비용 1000만원과 특별간식비용 1200만원, 비구니 군승 · 민간인 성직자 지원금 1200만원 등을 편성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계법회를 준비했다.

특히 특별간식으로 제공할 햄버거에는 법구경 문구를 담아 나눠줄 예정이며, 만(卍)자 펜던트 등 다양한 선물도 마련했다.

법회서는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이 계사로 나선다. 다만 법문은 20대의 젊은 장병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DJ로도 유명한 정목 스님이 맡는다. 법회 이후에는 스님들이 부대시찰을 하고, PX에 들러 장병들의 생활문화를 접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제11대 집행부는 해인사 자비원 인수를 비롯해 명사법계품서식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참된 회향을 위해 군장병 수계법회를 계획했다"며 "청년불자 양성에 모든 비구니스님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부족함 없는 법회로 장병들의 신심 증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경험, 작품으로 보답할게요"

포교원, 일러스트 · 동화작가 템플스테이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과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6일부터 7일까지 화성 용주사에서 '작가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일러스트, 동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작가들은 예불, 108배, 명상, 포행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였으며, 각 분야 작가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스님께 해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간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손을 닮은 관세음보살 손 모양(수인, 手印)을 그리며 불보살의 깨달음을 염원하는 만다라 명상시간이었다.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장정윤 작가는 "새로운 경험과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배움으로 다가왔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잘 비워내고 잘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됐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많은 작가들의 작업 속에 종교를 뛰어넘는 불교의 가치가 녹아들기를 바란다. 작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작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히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웹툰 및 만화 작가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직지사, 신인문학상 · 사명대사 백일장 공모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주지 법보)가 제2회 직지신인문학상과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을 공모한다.

직지신인문학상은 시(3편 이상) 부문과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부문으로 공모한다. 시 당선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단편소설 당선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기간은 8월 20일까지다.

당선작은 현대불교문인협회가 발행하는 문예계간지 〈불교와문학〉에 실리며, 당선자는 기성 문인으로 우대한다. 전국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은 시(1편 이상) 부문과 산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부문으로 나뉘며, 백일장 주제는 △불꽃 △포도 △매듭 등 3개다. 경북도지사상인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김천시장상인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 수상작 역시 〈불교와문학〉에 실리며, 두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6시 직지사 만덕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054)429-1700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茶道, K-Tea로 승화

명원문화재단, 8월 8~11일 '명원세계차박람회' 개최

제1회 茶인성교육대회 등 눈길
불교 다도 비롯 한국 차 소개
유럽 등 해외 다도인 대거 참여
국내외 150여개 부스 출사표

최근 생활 속 다도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불교 다도의 진면목을 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19 명원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는 국내외 차의 흐름을 살피고 세계 주요 차협회, 차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불교 다도의 현황과 흐름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박람회 프로그램 최초로 제1회 대한민국 차 인성교육대회다. 명원문화재단은 불교 사상에 기반해 그동안 다례와 다도를 매개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나서 왔다.

이번 박람회서는 국내외 인성 전문가와 차인 성교육의 사례를 나누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인성교육대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중 하루 2차례씩 전통다례체험관이 운영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불교차를 맛볼 수 있으며, 차나무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특히 찻자리의 아름다움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월드티아트콘테스트'는 다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박람회의 인기 코너였던 얼리버드 및 경품추첨이 올해도 진행되며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 세계 차의 흐름도 함께 살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서는 우리 녹차에서부터 해외의 명차를 접하고, 차 만들기부터 음용까지 차 문화 전반을 다룬다. 특히 선진 차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생소한 타국의 차를 소개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차협회 협회장을 대거 초청해 눈길을 끈다.

명원문화재단은 덴마크차협회 회장, 유럽차협회부회장 알렉시스 카에, 영국차협회 회장 섀론 홀 박사, 캐나다 차협회장 샤브남 웨버, 하와이 화산다원 대표 및 하와이차협회 이사 에바리, 호주티마스터즈 대표 셰린존스톤, 중국농업국제합작촉진회 차산업위원회 비서장 웨이유 등을 박람회에 초대해 '월드 티 포럼'을 연다.

국내에서는 한국차협회부회장 유양석 국민대학교 교수 등 차 인사가 참여키로 했다.

'차는 따뜻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스 블렌딩 티를 소개하고 블렌딩 티 추세를 돌아보는 포럼도 준비됐다.

풍성한 볼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눈을 끄는 것은 한국현대도예전 보듬이 전시회. '보듬이'는 '두 손으로 보듬어 안는 찻그릇'이라는 뜻으로, 흙 · 물 · 불 · 가마 · 땔감으로 만든 우리 찻그릇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선보인다. 여기에 해외전문가의 찻그릇 수리체험전도 함께 열려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다섯 방위의 신들에게 보호를 발원하며 차를 올리는 전통 '오방다례'가 펼쳐지고, 궁중해서 행해지던 '궁중생활다례'도 폐막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명원문화재단 측은 "시원한 차 향기를 따라서 여름 무더위를 잊고 명상과 차를 음미하며 삶을 관조해보길 바란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2018 명원세계차박람회

건강 명상 '에너지 팔괘' 체험을

보디메디테이션, 7월 21일 코엑스서 페스티벌

새로운 개념의 명상인 '에너지 팔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보디메디테이션(보리선수)은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코엑스 3층 전시홀D에서 제1회 에너지 팔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BTN불교TV와 (사)약사선원, ㈜경복문화가 협찬한다.

행사를 주최한 보디메디테이션은 진푸티 선사가 창립한 국제 명상센터로 오체투지, 대광명수지법, 보리청정관상법, 팔괘내공 등 불교 선수행을 바탕으로 한 명상법을 가르친다.

이중 팔괘내공은 어린 시절 병약했던 진푸티 선사가 스승인 인조사에게 전수받았으며 선사는 이를 통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강화시켰다. 팔괘내공은 몸의 원기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암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치유와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팔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미나:에너지 팔괘란 무엇인가 △체험:나무를 돌며 에너지를 채우다 △토크쇼: 에너지 팔괘와 사랑에 빠지다 △팔괘 퍼포먼스 대회 등이 진행된다. 문의 (02)6952-2047

신성민 기자

제10회 대불련 영부디스트 캠프

8월2~5일 인제 만해마을 일대서
낙산사 순례 및 도전붓다벨 눈길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에 따르면 20대 청년세대는 '라이벌이 된 친구'를 주요 불만으로 꼽았다. 경쟁 사회 속에서 20대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55.3%), 친구를 경쟁자로 보며(46.0%), 가까운 친구와 멀어졌다(35.0%)는 연구결과에서 공동체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년불자들이 함께 공존 공생하며 경쟁 문화를 극복해 가는 불교 캠프가 열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유진)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제 만해마을과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가치 있는 청춘,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제10회 영부디스트캠프(Y.B.C)를 개최한다.

이번 대불련 캠프는 청년들이 스스로 긍정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질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봉독, 대불련가, 사홍서원 등 입재식으로 시작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법등별 모임, 강연 및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는 미니북 만들기, 낙산사 순례, 불교 상식 퀴즈 도전 붓다벨, 마음 나누기, 바다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박유진 회장은 "불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만난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어떠한 목적성보다 함께하는 도반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캠프에서 이뤄지는 단체 활동을 통해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도반으로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문의는 대불련 중앙사무국(www.kbuf.org)으로 하면 되며,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노덕현 기자

東佛 60년, 선후배 원력 다시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발표

일일수행 신행결사 입재
60년사 발간, 추모제도
제1회 동문합창대회 통해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 견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29일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서울지부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이 청년포교를 발원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이하 동불) 동문들이 동불 60주년을 맞아 신행결사를 통해 선후배들의 원력을 다시 모으는 데 나섰다.

동불 동문회(동문회장 사기순)는 6월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서울지부 연합법회서 내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신행결사 운동, 찬불가 대회 등 기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960년 11월 21일 창립된 동불(회장 정여진)은 동국대 내 일반대학의 불자학생들의 신심 고취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명상강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캠퍼스 포교활동에 나선 상태다.

동불 동문회는 이런 동불 활동에 발맞춰 재학생과 함께하는 신행결사 운동을 올해 2월 19일 입재했다. 11월 21일 창립 60주년까지 동문 재학생이 함께 매일 일과 수행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동불 60주년 사업은 크게 '동불 60년사' 발간, 제1회 전국대학동문합창경연대회, 동불선망영가추모제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11월 21일 창립을 기해 봉정될 '동불 60년사'에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불의 역사가 총 망라돼 담긴다. 동문 재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동불에게 바란다', '나의 삶 나의 불교' 에세이 등 다양한 동불 출신 동문들의 글도 함께 실린다.

이와 함께 먼저 세상을 뜬 동문들을 다시 생각하는 행사도 열린다. 동불은 7월 20일 부천 향림사서 동불 선망 영가추모제를 개최한다. 향림사는 1975년 동불회장을 맡았던 법공 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이다. 이날 추모제에는 73학번부터 89학번까지 영가 21위 추모가 진행되며 앞으로 매년 동불추모제가 진행된다. 추모제에는 73학번부터 89학번 동문들과 13~19학번 재학생들이 참여한다.

또 내년 5월 개최를 목표로 '제1회 전국대학동문찬불가합창경연대회' 준비도 시작된다.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 동문 합창단이면 참가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참가팀을 접수받는다. 총 9개 팀에 1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경연곡은 자유곡 2곡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합창단 구성원에 재학생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기순 동불 동문회장은 "불교학생회 동문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후배들 불교학생회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불교를 널리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원동력이 모든 세상사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라며 "동불 봉문들의 불연을 가슴에 새기고, 중단없는 정진으로 한국불교에 새 활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도 "종립 동국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상징성이 크다"며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문들이 원력을 모아 60주년을 맞아 대학포교 활성화와 한국불교의 미래 개척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제 4 회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9

천태예술 공모대전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4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총 5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 2019. 08.28 (수) ~ 29 (목)
전시 2019. 10.23 (수) ~ 28 (월)

● 분야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격	유의사항
불 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가능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공 예	높이 200cm 이하 가로x세로 2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x세로 130cm	1점당 50,000원			배접하지 않고 접수 (입상작 표구비 7만원 별도)
민 화	120호 미만	1점당 50,000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할인 30,000원					액자 유리 금지

●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상패	
부문별우수상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상패	
가작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상패	
장려상	10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상패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23~28일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 유의사항
- 대상작은 종단 귀속.
- 필요 시 입상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특선 이하 작품은 전시장 사정상 전시하지 못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 원서 등록 : 방문접수, 우편접수 (우편발송의 경우 29일 도착 분까지)
- 접수 기간 : 8월 28일(수)~29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8월 29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출품자 확인)이 접수증 확인 후 회수.
※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전시 종료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 문의 -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 02-547-4746

● 심사 발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및 개별 문자 통보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新 랜드마크 · 기부 확대로 다시 뛰는 東國

5월 선포된 '에너자이즈 동국'
'안정적 재정 기반' 핵심과제
'동국 1 · 1 · 1' 캠페인 브랜드화
매년 1000구좌 참여 유도 계획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박차'
교육 · 연구 공간 확대 절실해
2012년부터 매입 · 설계 추진

725억원 투입되는 대작불사
교육 · 통학 환경 개선 도움돼
종단 지도자 · 동문 기업 관심을



동국대 중문 일대에 세워질 로터스관 조감도. 현재 동국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불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국대는 "중문 일대 새로운 랜드마크인 로터스관 건립을 위한 종단 및 동문 기업 모연을 시작한다"면서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해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 '동국사랑 1 · 1 · 1'을 브랜드화하는 등 적극적 모금사업을 펼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모금 사업 아이템 다양화

지난 5월 새 비전인 '에너자이즈 동국(Energize Dongguk)'을 선포한 동국대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동국대는 △기부금 모금 대상 확대 △기부 아이템 다양화 △동국사랑 1 · 1 · 1 브랜드화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동국대는 명상과 사찰음식, 연극영화 등 학내 주요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외 유수기업 및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동국 후원의 집' 명판 수여와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홍보를 통해 캠퍼스 주변 상인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국대를 대표하는 굿즈(goods)를 개발하고 모금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기부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정기 소액 기부 캠페인 '동국사랑 1 · 1 · 1'을 대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 하다. 동국대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마스코트 제작 △학생 홍보대사 운영 △동국사랑 어워드 개최 △캠페인 브로셔 및 소식지 제작 △SNS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00구좌 이상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게 동국대의 목표다.

동국대 관계자는 "주요 동문 모임별 단체가입을 요청하고 교내외 상인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계획 중"이라며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 시급 과제

이와 함께 동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불사는 '로터스관 건립'이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연면적 2만4751㎡, 지상 2층,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로터스관'은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가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다. 그간 동국대는 문 · 사 · 철(文 · 史 · 哲), 즉 인문학 분야에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이공계 대학평가'에서는 종합 12위에 올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공계를 집중 육성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동국대의 연구비 입금액도 7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이공계 약진에도 동국대는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로 세밀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의실과 연구 · 실험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야만 교육연구 경쟁력이 향상되고 혁신적인 성과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교사는 포화상태"라고 밝혔다.

교육 · 연구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보니 자연히 '학생 복지'와 관련된 공간 마련은 더욱 요원하다.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동국대는 지난 2012년부터 중문 일대에 건물 신축을 추진해왔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 중문 일대 주택 및 국유지 매입, 기획설계 용역 및 지질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2018년 3월에는 신축건물 명칭 공모를 통해 '로터스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개월이다.

로터스관 어떻게 구성되나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은 어떻게 구성될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이다. 동국대는 이 같은 컨벤션 시설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졸업식, 동창회 행사 등 동국인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동국대 내에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없다. 현재 입학식은 장충체육관에서, 졸업식은 석 · 박사 학위자만을 대상으로 중강당에서 소규모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터스관이 완공되면, 해외 명문 대학처럼 졸업식 때 학부 졸업생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외부 명사의 강연을 듣는 모습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터스관 내에는 첨단 시설을 갖춘 박물관과 113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학교 역사관도 들어선다. 보행로 평탄화 작업과 동호로 방면의 차량 출입로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외부인들의 방문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이서진(경영학과2) 씨는 "매일 아침 대중교통으로 학교에 오면 다시 언덕길을 올라야 해서 너무 힘이 들었다. 로터스관이 건립되면 평지를 걸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통학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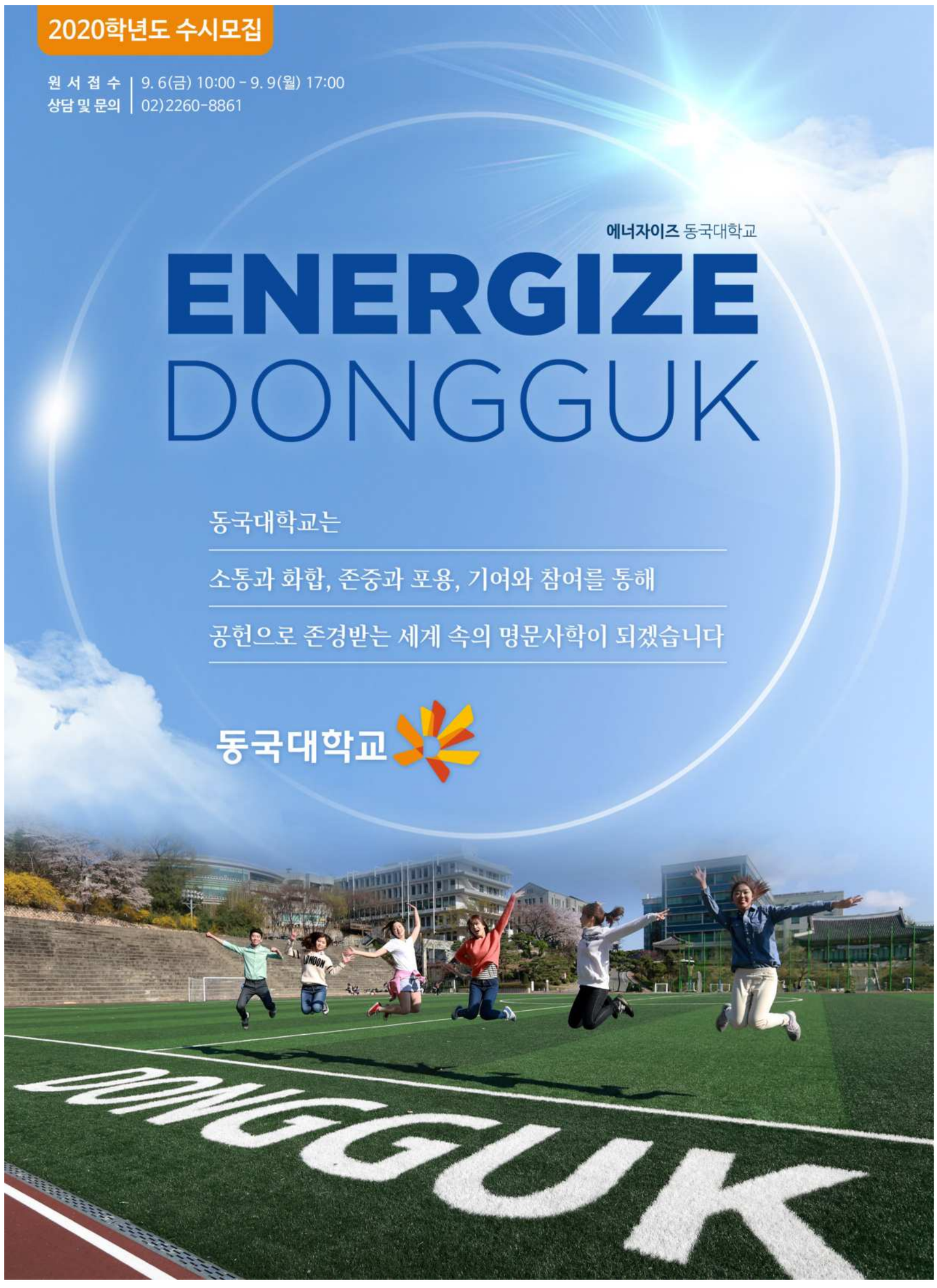
로터스관 건립 기금 모연 '숙제'

로터스관 건립의 최대 숙제는 기금 마련이다. 로터스관 건립에는 약 72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4년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대대적인 기부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동문, 스님, 불자, 기업체, 학부모, 교직원 등 많은 이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불교계에서는 충원사 주지 자도 스님이 10억 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해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 길상선원 주지 원명 스님, 숭림사 진락 스님 등이 기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 운문사 · 통도사 등 사찰과 불자 기업인인 이근창 한양스틸프라자(주) 대표이사 등도 기부에 동참했다.

동문 기업인 중에서는 전순표 ㈜세스코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 송석환 동진기업(주) 회장, 서정호 앰버서더호텔그룹 회장 등이 기부에 동참했다. 현재 교직원들과 동문, 스님, 신도들이 십시일반 기부에 동참해 모연된 기금은 84억 원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로터스관 건립은 향후 4년간 전개될 교육 · 연구 부문의 혁신을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해 학교 발전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로터스관 건립을 통해 세계 100위 학과 육성, 국내 대학 10위라는 목표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불교계와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자 · 동문 기부, 동국 발전 견인차

학교 발전에 함께한 기부자들

1906년 개교한 동국대는 불교계 선지식들의 교육구국의 원력과 소중한 정재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후 113년의 역사 속에서 학교 발전을 이끈 것은 불교 인재 양성의 원력과 기부 전통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소나무 판자로 지어진 임시강의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 동국대는 부족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본관(현 명진관)을 건립했다. 건립 과정에서 후원회와 학부모, 학생들의 기부는 결정적 도움이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불교계 최초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동문, 불교계, 교직원 등 총 6,500여명이 기부에 참여해 총 114억 원을 모금했다.

2012년에는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의 대운동장과 수영장 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재원 마련을 위해 '땅 한 평 갖기'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2만3499㎡(7,100여 평)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미래 유망분야인 바이오 · 메디컬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에 '바이오관'이 완공됐다. 바이오관은 동문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법학


한국전쟁 직후 부족한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연한 기금으로 현재 명진관이 건립됐다.

55)이 118억 원을 기부해 건립됐다. 이에 동국대는 건물 이름을 '상영 바이오관'으로 명명 · 예우했다.

동국대 대각전은 1만불(佛)의 부처님 봉안불사로 유명하다. 1997년 개원 이래 매년 학교 후원자들의 원불을 모시는 봉안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총 7,767불의 부처님을 모셨다. 목표인 1만불까지는 총 2,233불만 남겨놓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의 역사는 '기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스님, 동문, 불자들의 기부는 동국대 발전을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동국사랑 1 · 1 · 1' 등 동국대 기부 캠페인에 스님과 동문,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리산 山寺에서 흠뻑 빠지는 선율

문수암 7월 27일 산사음악회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산사음악회가 지리산 산사에서 개최된다.

지리산 산청 문수암(주지 기영)은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경내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한 산자락에 위치한 문수암은 지역민들과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마련,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산사음악회 프로그램은 성악가 바리톤 신화수, 피아노 임동창, 창원남성합창단, 꼬니니꼬 체임버앙상블이 참여하며, 곡명은 △사랑의 인사 △세레나데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그리운 마음 △아리아 △루마니아 춤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광야에서 △1300년의 사랑이야기 등이다.

주지 기영 스님은 "무덥고 지친 여름 산사에서 쉼을 얻고 음악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산사서 휴식을" 마음 쉬는 토요일

7월 6~7일 경내서 열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7월 6~7일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마음 쉬는 토요일'을 경내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보 62호 미륵전에 깃든 이야기를 소재로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됐다.

전주의 젊은 소리꾼 최재구 · 최재원이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를 통해 금산사의 역사와 전통을 특유의 해학과 판소리를 엮어 해설하고, 서예 대가인 심원암 원광스님 지도로 미륵전 탁본체험 등이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자연(광주여상3) 학생은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자연과 함께 하는 1박2일의 일정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숙소와 프로그램 모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오직 아는 것, 이것만이 진실임을 깨달아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희의 '화엄법석' 다시 이어진다

부산 범어사, 1000일 화엄법회 회향 후 입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가 1000일 동안 진행한 53선지식 화엄법회를 회향한다. 매월 초하루 화엄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법문과 화엄성중을 부르는 기도로 도량은 가득 찼고, 화엄종찰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평가다. 범어사는 오직 불자들이 화엄의 도리를 알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며 회향과 동시에 새롭게 입재를 알린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1000일 화엄법회' 회향 및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범어사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경내 보제루에서 '범어사 53선지식 1000일 화엄대법회-3일 특강'으로 1000일 화엄법회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법석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무비 스님, 지안 스님이 릴레이 특강으로 화엄의 가치를 알리고 소개했다. 이후 매월 초하루마다 보제루에서 전국의 선지식과 대강백이 〈화엄경〉을 설하며 보살도를 강조했다. 그동안 화엄법회의 법문을 담당한 법사 스님은 보광 스님(前해인사 주지), 청화 스님(前조계종 교육원장), 성파 스님(통도사 방장), 종진 스님(前해인사 전계대화상), 원학 스님(前조계사 주지), 종범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법산 스님(동국대 이사장),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성우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태원 스님(前중앙승가대 총장) 등 내로라하는 대강백들이었다.

8월 1일 보제루서 새 출발해
국내 화엄 대강백 초청 눈길
입재 맨 방장 지유 스님 법문
"회향은 입재, 더욱 정진하라"

다가올 회향 및 입재법회 법문은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이 맡는다. 지유 스님은 선으로 본 화엄의 세계를 풀어 줄 것으로 대중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범어사는 다가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1000일 화엄법회' 회향 및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016년 입재법회 당시 모습.

범어사는 매월 법회 외에도 〈화엄경〉 강설과 사경을 나눠 꾸준히 공부하도록 이끌었으며 화엄성중 기도를 매일 진행해 각 근기에 맞는 수행 정진을 제시, 불자들의 성장을 도모했다.

화엄법회에는 매월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화엄법회 주제와 맞는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법회 때마다 법보시하고 사경집도 법회 강설과 맞는 품으로 나눠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1000일 동안 화엄신중기도가 이어졌다.

주지 경선 스님은 "근기가 다른 불자들을 위한 방편이자 기도를 통한 내면 성장과 가피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범어사도 역대 가장 큰 불사를 담당 중인데 기도의 가피인지 원만히 해결되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했다.

범어사 53선지식 화엄법회는 회향 후 바로 입재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선 스님은 "회향을 맞고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출발할 것"이라며 "더욱 정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 도리 드러나야 불자들의 참된 회향"

인터뷰 |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1000일을 맞아 불자님들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자신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화엄의 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향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1000일 동안 이어온 53선지식 화엄법회 회향을 맞아 삶 가운데 보살도를 실천하고 화엄 불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했다. 경선 스님은 "방대한 화엄경의 도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쓰면 사람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1000일 동안 이어진 화엄법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불자들이 성장했고, 외형적으로는 범어사가 더욱 커졌다. 화엄종찰로 위상을 높이고 알리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운산에 '녹차문화관광산업' 추진

선운사 · 고창군 · 주식회사 LF 업무협약 체결, 사업계획 구성



선운사 스님과 고창군 관계자 등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의 녹차밭을 활용한 차문화 문화관광산업이 추진된다.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군수 유기상), (주)LF그룹은 7월 10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선운산 녹차밭 문화관광산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녹차밭 실소유주인 선운사는 (주)LF그룹에 일정기간 사용권을 인정하고, (주)LF는 녹차정원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복합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해 숙박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선운사 녹차밭 복합공간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먼저 녹차밭 사잇길을 거닐며 주변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된다. 여기에 선운사 브랜드를 활용해 중국의 서호용정차, 일본 교토우지차 등과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명차를 육성하고, 제품 생산과 체험, 시음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숙박시설 건립도 계획돼 한 해 260만 명에 달하는 선운산 방문객들과 고창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협약식에서 "삼지장보살님이 상주하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사에 녹차정원이 조성돼 더 많은 인연과 귀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차나무 자생의 북방한계선인 선운사 일대는 작설차 맛이 일품하다. 참새 작(雀)자와 혀 설(舌)자를 쓴 작설차는 참새 혓바닥처럼 생긴 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며 은은한 향에 맛이 부드럽다. 고창 출신의 조선후기 대표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 선생이 쓴 〈이재난고〉에서도 선운사 차의 유래와 제조법의 특색, 그 차와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한편 (주)LF그룹은 LF푸드와 라푸마코리아, 동아TV, 구르메F&B코리아 등 38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생활문화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다각화(외식 · 숙박 등)를 통해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사랑 한걸음, 사회변화 꿈꿔요"

부산불교교육대, 2019 가족사랑 걷기대회 동참

부산불교교육대학이 가족사랑 실천을 강조하며 걷기대회에 동참 후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7월 6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함께하는 2019년 가족사랑 실천 건강 걷기대회'에 동참했다.〈사진〉 이 대회는 부산시민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행사 취지에 공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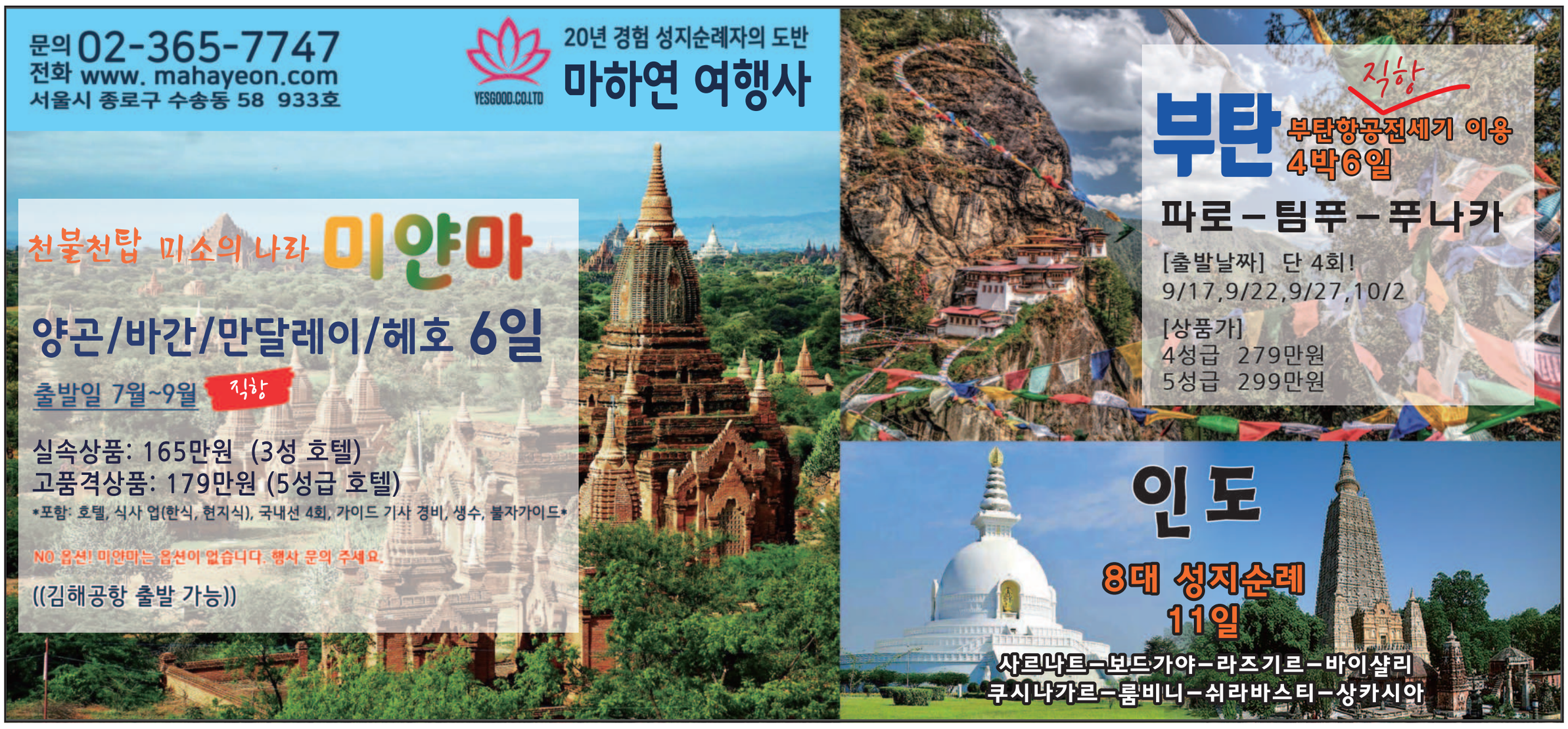
부산불교교육대학은 LED-TV와 자전거 등 행사경품을 찬조하고, 학장 범혜 스님을 비롯해 학생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또 홍보부스를 마련해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펼치는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실버 패션쇼,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숲길 걷기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가족페스티벌과 경품 추첨 순으로 마무리됐다.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자살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부산, 살기 좋은 부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양성평등 주간에 맞춰 부산시와 부산여성신문이 주관 주최했으며 대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 등 사부대중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거리 홍보캠페인' '자비연탄 나눔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참선아카데미

“마음 아픈 원인, 내 태도에 있다”

연일 뉴스에 사회범죄 소식이 보도된다. 그리고 범죄자가 겪는 정신질환도 언급된다. 소위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간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아프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불교정신치료’ 라는 하나의 정신치료체계를 정립한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7월 6일 서울 참불선원에서 진행된 제2기 참선아카데미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강의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주제 : 불교정신치료는 무엇인가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경남고를 졸업하고 부산대서 의학 학사를 받았다. 한양대 대학원서 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0년부터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법원행정처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저서 <불교정신치료 강의>로 제9회 원효학술상 비전임교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600년 전 부처님 설한 말씀
인간 이해하는 완벽한 틀이자
괴로움서 벗어나는 치료방법
현상 받아들이는 훈련 해보자

괴로움에 박식한 불교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불교수행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불교정신치료’ 라는 어찌 보면 새로운 체계를 세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불교와 정신치료를 따로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딱 붙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 자체가 정신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불교는 어떤 정신치료보다도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불교정신치료’ 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이루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난 콜린 파웰에게 사람들이 뒷배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20대 때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청소를 했고, 그때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불교정신치료를 목표로 세웠던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도달하게 된 거죠.

제가 1987년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1990년에 개업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강의를 제안했는데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강의가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선배에게 물었죠. 그 선배는 영어로 된 책을 하나 주면서 달달 외워 가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외우면서 보기 쉽게 카드도 만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당일 강의장에는 40~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책을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바로 경험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당연히 인과의 법칙에 따라 발생한 걸 실패로 규정하고 상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에게 사람들이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때 정 회장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실패가 있다고 할 순 있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일이 생겨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길을 걷던 저는 우연한 인연을 만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익진 동국대 교수님입니다. 당시에 저는 서른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불교란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하는 정신의학도 결국 정신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교의 용어만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를 모르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님 밑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했고, 세상이 구성된 원리를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불교의 업설을 생활에 적용해보니 도움이 참 많이 됐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사람들의 삶이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2003년에는 사띠 수행이란 걸 알고 미얀마에 가서 한 달간 수행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9시 반, 10시쯤 자는 일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몸과 마음은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연법칙을 아는 이유는 자연현상을 유심히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4부 니까야를 다 읽었습니다. 그때 불교와 정신치료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얀마로 떠나 사마타 위빠사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맞이하는 건 거시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삼매를 닦으면 통상적인 의식으로 보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각자의 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삼매를 닦고 보면 그건 그저 관습적인 실재입니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가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정신적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삼매를 닦아 지혜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를 회복하려면 유익한 마음이 축적돼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고 불교와 정신치료가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까지 아플 필요 없다

정신치료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략 1000가지가 있다고 알려졌고요. 대표적인 건 프로이드 정신분석, 융의 분석심리학, 칼 로저스의 내담자 심리치료,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1900년대 프로이드에서 시작된 정신분석이 최초의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정신치료는 2600년 전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신치료 본질은 창시자에 의해 시작됩니다. 창시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사유에 바탕을 두고 학파를 만들죠. 프로이드도 학파를 세웠지만 제자들이 보완해나갔습니다. 모든 학파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치료자와 환자가 관계를 갖고, 사람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걸 본질로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교도 인간을 이해하는 틀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틀이죠. 프로이드나 융 같은 학자들은 자기경험과 사유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것이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의식을 넘어선 관찰인데요. 부처님이 삼매를 닦으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법을 여실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 박식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해결을 완벽하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정신치료는 3가지 원리에 기초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뤄져 있는데 어떤 속성을 갖는지 잘 아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몸과 마음을 잘 알아도 세상의 원리를 이해해 공존하며 사는 겁니다. 셋째는 세상의 원리 같은 큰 지혜 말고도 살아가며 순간순간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입니다.

몸을 잘 관찰해보면, 조건에 따라 생명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이죠. 이런 생명활동은 중립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애수행을 한다고 해보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립적인 건 대략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람쯤 되겠죠. 생명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좋고 싫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과 다리가 알아서 걸어 다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가정해보죠. 아주 중립적인 생명활동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배는 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짜증이 납니다. 배고픔이라는 생명활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반면 누군가는 “내가 소화기능이 참 왕성한가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이처럼 생명활동 자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생길 뿐이죠.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화시키면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플 때 마음도 따라 아픕니다.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만 있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회복속도도 빨라집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아플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결과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2의 화살’ 을 맞지 말라는 얘긴데요.

몸이 아픈 게 제1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픈 것은 제2의 화살입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짜증을 내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못 먹고 배가 아프다고 가정해보죠. 내가 그걸 왜 먹었지, 누가 나한테 먹으로 권했지, 얼마나 오래 아플까 등등 근심걱정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우린 화살을 더 맞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은 조건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도 나에게 안겨주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몸이 아플 때 ‘아, 몸은 원래 그렇지’ 하면 딱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의 동요도 없죠. 이게 바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이뭣꼬, 현대미술로의 적용 '샘'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⑬ 뒤샹의 샘과 조주선사의 잣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 No. 2〉


1912년〈자전거바퀴〉



1913년〈샘〉, 1917년

단순한 사물로 볼 때는 설명이 전혀 필요치 않은 물건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미술품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난해한 작품이 있다. 프랑스 태생의 작가 마르셀 뒤샹(Henri-Robert-Marcel Duchamp, 1887-196)의 〈샘 Fountain, 1917〉이다. 남성용 소변기를 방향만 바꾸어 전시해 놓고 그 테두리에 R.Mutt라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사실 Mutt는 그 당시 위생 설비 제조업체였던 'Mott Iron Work' 라는 회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뒤샹은 원래 이 이름을 생각했다가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했던 그 당시 미국의 신문 만화 '머트와 제프' (Mutt and Jeff)에서 착안하여 R.Mutt로 바꾸었다고 한다.

'레디메이드' (ready-made)로 흔히 불리우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간단히 말하자면, 실제적 사용을 위해서 대량 생산된 기성품 같은 것들을 조형예술 작품으로 그 의미를 전환하여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미술사에서는 마르셀 뒤샹이 처음 시도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성품은 그 특정한 의미가 대상에 매우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다. 가령, 자전거 바퀴는 둥글고 튼튼해서 탈 것의 용도로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그 어떤 실용적인 물건이며, 가지가 비쭉비쭉하게 사방으로 뻗은 나무처럼 생긴 와인병 걸이 역시 병들을 걸어두는 용도일 뿐, 일상에서 그 이외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레디메이드 예술은 대량 생산된 기성품들의 원래적 의미를 떼내고 해체하여, 어떤 다른 상황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 대상, 즉 오브제가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일종의 예술적 체험을 환기한다.

자전거 바퀴를 떼내어 전시장에 걸어두면 작품이 되고, 주방 소품을 전시장에 가져다 놓아도 작품이고, 변기가 전시장에 놓이면 역시 예술작품이 된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실, 〈샘〉에서 일상 생활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어떤 도구라는 기성의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오브제 그 자체가 가진 조형적 형태만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진 아름다운 물체로 보이기도 한다. 반짝이는 표면의 재질감과 풍부한 양감 또한 기존의 예술 작품, 조각 작품들이 지녔던 미적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미술의 여러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난해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게 뭐지?(What is This?) 이것은 과연 예술작품일까?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미는 여전히 유의미한 연관을 지니는가? 또 예술가와 예술의 관계는 어떤가? 미술대중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뒤섞인 지점에서 혼란스러울 뿐이다.

뒤샹은 1917년 봄 뉴욕에서 개최된 '독립 예술가 협회' 의 전시에 〈샘〉을 제출하였다. 당시 뒤샹은 협회의 회원으로 있었고, 협회의 규정상 회원이 제출된 작품을 거절하여 반환할 수는 없었기에, 일단 접수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전시되지는 않았다. 다른 회원들 간에 벌어진 토론에서 '이것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없다' 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시회 기간 동안 이 작품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기에, 실제로 관람객이 감상할 수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작품 원본의 이미지는 사진작가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런데 2004년에 터너상 시상식에서 영국의 미술 전문가 500인이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으로 뒤샹의 〈샘〉이 1위로 선정되었다. 2위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Les Demoiselles d' Avignon, 1907)〉, 3위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두 폭 성상화 Marilyn Diptych, 1962〉였다. 비록 당시에는 전시에서 배제될 정도로 예술작품으로서 그 타당성을 의심받았던 〈샘〉은 오늘날에는 미술사를 바꾼 위대한 작품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난 뒤샹은 천성적으로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뒤샹의 형제 자매는 7남매였지만, 1명은 유아 때 사망했고 나머지 6남매 중 뒤샹을 포함한 4명이 성공적인 미술가가 되었다.

뒤샹이 남긴 그림들을 보면, 마치 근현대 미술사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가 15세 때 그린 풍경화는 전형적인 인상파 그림처럼 보이며, 20대 초반에 그린 〈체스 게임〉에서는 조르주 루오와 같은 야수파의 면모를 연상케 한다. 이후에 그가 그린 그림들에서는 상징주의, 표현주의, 입체파 등 그 당시 미술이 모색했던 여러 유형의 양식들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뒤샹은 어느 날 문득 구름을 헤치고 하늘에서 강림한 미술사의 대 천재라기보다는, 현대 미술의 토양에서 싹을 틔우고 빗줄기와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 끊임 없이 새로운 예술정신을 추구했던 개척자이다.

여러 자료에서 피상적으로 전해지는 뒤샹의 성격은 기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뒤샹은 조용하면서 절제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뒤샹이 최초로 평단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2, 1911〉인데 이 작품은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아모리 쇼(Armory show)에 전시되었다. 당시 미국의 화단은 유럽과의 지리적 격리로 인해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 그 해 미국에서 개최된 아모리 쇼는 서유럽에서 일어난 새로운 미술 사조를 미국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앵그르, 들라크루아, 쿠르베, 모네와 같은 19세기 대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마티스, 피카소, 레제, 칸딘스키 등 현대미술의 선구자에 해당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전시에 참가했던 뒤샹의 이 작품은 당시 평론가들에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러니하게도 1919년 이후 뒤샹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뒤샹은 회화가 아닌,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작업방식을 통해 현대 미술의 빅뱅을 촉진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뒤샹이 현대미술에 전한 화두는 예술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었다. 근대 자연과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영구불변하고 독립적인 견고한 실체라는 막연한 믿음을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인쉬타인의 상대성이론이 해체해버렸다. 우주의 질서는 초기조건과 인과관계의 연쇄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 즉 '뉴턴의 시계' 를 양자역학의 주사위가 깨어버린 것처럼, 뒤샹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막연히 이어져 내려오던 예술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무너뜨렸다.

앞선 언급처럼, 뒤샹의 작품 〈샘〉에는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 R.Mutt가 적혀 있다. 뒤샹에게는 〈샘〉이라는 작품을 만든 이는 마르셀 뒤샹이 아니라, 그 누구가 되어도 무방했다. 위생 설비 제조업자의 이름이든, 아니면 만화 주인공의 이름이든 그것은 뒤샹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예술작품에서 작가의 서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했다.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미술품의 값어치가 작가의 명성에 따라 매겨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본질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작품이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과 그 결과인 예술작품의 객관적 실체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뒤샹은 〈샘〉의 서명으로 이러한 기존의 타성을 해체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복시켰다.

전통적 조형예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현된 자연에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나 뒤샹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렸다. "예술품이란 색을 칠하고 구성할 수도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 뒤샹은 기성품에 부여된 일상적 의미를 떼어내고 해방시킨다. 의미와 분리되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원래의 용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작품 제목과 더불어 미술관 전시 공간을 차지하며 감상자의 눈 앞에 놓여진 오브제. 이제 작가의 생각, 의도, 개념 그 자체가 예술이 된다.

고정된 용도에서 해방된 오브제의 의미적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은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나 감상자, 미술비평가 및 그들을 포함한 사회의 미적 창의성으로 인도된다. 뒤샹의 작업은 푸른 도화선 속으로 불꽃을 몰아가는 힘마냥, 현대의 여러 미술 사조들을 고무했고, 평론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담론을 낳았다. 이후의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조지 디키(GeorgeDickie)와 같은 평론가, 아서 단토(ArthurC.Danto)와 같은 미학자들의 이론과 관점 역시, 뒤샹이 제시한 의미의 공허에서 출발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흐름을 제시한 이가 마르셀 뒤샹이다. 뒤샹은 '레디 메이드' 를 가지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나섰다. 그의 반미학적 전략은 일상과 예술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예술 개념의 외연을 확대시켰고, 예술에 대한 정의 가능성에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근래 학계에서는 기존의 예술 개념이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포용하기에는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시각문화(visual culture)' 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뒤샹의 〈샘〉은 그가 내세운 전략과는 유리된 채 여전히 시각적 아름다움과 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인 예술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미술관에 소장되고 전시 중이다.

"내가 레디메이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미학자들을 낙담시키려 했었다. 그런데 네오다다는 거기서 미적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 나는 미학자들의 얼굴에 하나의 도전으로 변기를 던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샘〉은 스티글리츠 사진으로만 전해지고, 현재는 1964년 슈바르츠(Arturo Schwarz)에 의해 8개 한정판으로 주문 제작된 것이 남아 있다.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조사(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쭈었다. 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라고 짧게 대답했다. 뒤샹의 예술적 전략은 해소(解消), 실제를 드러내기 위한 은유(隱喩), 그리고 의도적 무의미라고 하는 선문답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뒤샹이 제시한 오브제, 〈샘〉은 어쩌면 무심히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와 같을지도 모른다. 조주 선사의 잣나무와 마찬가지로 뒤샹의 〈샘〉은 실체에 대한 가리킴(point at)이며, 본질의 드러남을 추구한다.

눈 앞의 대상에 전적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일은 소란한 삶 속에서 맞이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알아차림의 순간이 된다. 〈샘〉은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예술의 창작과 향수에 고착된 기존의 타성을 버리고 우리의 눈 앞에 현존하는 대상을 조용히 관조하라 일깨우는 것 같다. 어쩌면 뒤샹 이후 현대예술이 추구한 한가지 방향은 일체의 관습을 배제하고 실상을 꿰뚫어보는 시선에 대한 심원한 여정이다. 이뭐꼬!! What is This!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염무적지 부절무변 念無適止 不絶無邊
복능알악 각자위현 福能遏惡 覺者爲賢
〈법구경 法句經〉 중에서

〈미술학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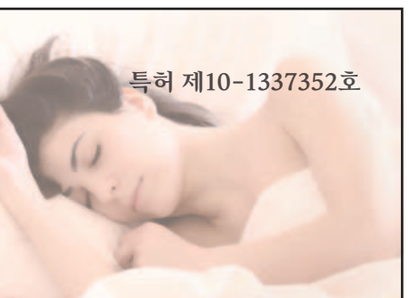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경쟁 아닌 상생의 길은 어디나 있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⑬ 불교와 유교가 겪은 탄압들



그림 · 박구원

우리는 강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인가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인 원한을 두고 우리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이란 말을 쓴다. "함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남을 뼛속 깊이 미워하다 보면 사실 괴로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저주란 약한 자의 거의 파괴력 없는 무기일 뿐인데, 이것이 집단화되거나 권력자들이 사악하게 이용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저들이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나보다 돈이 많거나 출세를 해서, 내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에 미워하는 마음이 움튼다. 이런 미움은 발전보다 파괴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물질과 인명을 말살한 끝에 인성마저 피폐해진다. 남을 미워하는 일은 칼끝이 자신에게로 향한 저주에 불과하다. 이를 번연히 알면서도 인간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산다.

이런 글을 쓰고 있노라니 개운치 않게도 내게도 몇몇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른다. 이미 연락은 끊겼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뇌리 안에 들러붙어 나를 분노와 번민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공자는 충서(忠恕)가 자신의 절대 좌우명이라 갈파했으며, 부처님도 "미워하는 이도 사랑하는 이도 만들지 말라. 모두 괴롭다"고 간곡히 권하셨지만, 성현이나 각자(覺者)의 근처도 가지 못한 일개 범부인 나는 그 아집의 기억을 털어내지 못한다.

돈의 논리가 신탁(神託)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패자를 밟고 일어서야 승자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패자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에 급급하다. 두 번의 기회의 주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황폐의 극한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 했듯이 이렇게 경쟁의 악령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공멸(共滅)뿐이다.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를 든 자의 싸움처럼 자기모순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번갈아 저지른다. 불교가 이루려는 연화장세계, 유교가 꿈꾸는 대동(大同) 세상은 끝내 환상에 그치고 만다.

"너와 내가 더불어 잘 살자."는 조화보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대결 논리는 개인 사이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다. 집안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집단 사이에도 빚어지며, 민족들 사이에도 출현하고, 심지어 나라 사이에서도 충돌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증오가 이념이나 종교 사이에서 벌어지면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무섭고 끔찍한 재앙으로 들이닥친다.

중세 서양에서는 초승달과 십자가의 전쟁이라 불리는 '십자군 전쟁' 이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2백 년에 걸쳐 완강하게 지속되었다. 게다가 그 전쟁은 종식은커녕 불씨로 남았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비극을 활활 불태우고 있다. 중세 교회의 마녀 사냥은 또 어떤가.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지향하는 종교가 이런 극한의 대립 끝에 무수한 인명을 살육하는 꼴을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본다면 과연 무슨 통탄의 넋두리를 쏟아낼지 귀를 막아도 귓전을 때린다. 인간들끼리의 공존을 외치는 종교가 오히려 갈등과 적개심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는 현실은 우리를 나락에 빠뜨린다.

부처, 통곡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평화의 어깨춤을 출 세상을 꿈꾸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터를 닦은 불교가 지금은 세계 3대 종교로 자리했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항상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시련으로 고통 받고 박해를 당해 신음하던 때도 없지 않았다. 믿음이 다르다고 상대를 적대시한 적이 없는 불교가 탄압과 도발의 대상이 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인류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이 드물지도 않다.

불교가 다른 종교나 이념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우리는 법난(法難)이라는 용어를 쓴다. 불법(佛法)이 당한 재난 또는 환란이라는 뜻이겠다.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인도에서 지금 불교는 명맥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교세가 미미해졌다.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불교 교단은 쇠퇴했다고 보는데, 이슬람의 침략에 따른 박해도 이유의 한 가지라고 한다. 그들은 불교를 우상의 종교로 보아 불교 사원을 파괴했고 불자들을 억압했다고 한다. 일종의 종교적 증오범죄라 할 만한데, 지금도 이런 반인륜적 범죄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도를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부처님의 가르침도 항상 환대만 받은 것은 아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 699?-759)는 선불교가 보여준 고요한 선정(禪定)의 세계를 시로 아름답게 구현해 '시불(詩佛)' 로 불렸다. 또 많은 왕조들이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인 경전을 한문으로 옮기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방대한 불경(佛經)을 편찬하기도 했다. 돈황석굴이 보여주는 장엄한 불교예술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그러나 늘 이런 황금기만 있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네 차례 큰 법난이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삼무일종(三武一宗)' 의 법난이라 부른다. 북위의 태무제(太武帝)와 북주의 무제(武帝), 당나라 무종(武宗), 후주의 세종(世宗)이 저지른 폐불(廢佛)을 일컫는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문인 한유(韓愈, 768-824)는 유교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불골표(佛骨表)〉를 올려 황실의 불교 수용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이단에 대한 유교의 적의는 대개 불교를 향했다.

佛 연화장 · 儒 대동 세계
공생공존의 가르침 같아
혐오 · 적대감의 광풍 벗어나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도 이차돈의 순교라는 상징적인 박해를 겪은 뒤에야 안착할 수 있었다. 이후 불교는 고려시대 때까지 국교(國敎)라 해도 좋을 만큼 번영을 누렸다. 그러다 유학자의 나라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는 된서리를 맞았다.

이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를 숨기지 않았던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완성된 사상인 성리학은 조선 유학자들에게는 전가의 보도였다. 그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마저도 죄악시해서 종교 혐오, 문화 혐오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주희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악한 유산이었고, 불구대천의 존재로 간주되었다.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학자들에게 관용이나 공존의 논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지독한 폐쇄적이고 타협을 용납 않는 유학자들의 관념과 그 실천은 결국 조선 자체를 '우물 안 개구리' 로 만들어 버렸다. 조선조 5백 년 동안 자행된 불교 탄압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정동주가 쓴 『부처, 통곡하다』(이룸, 2003년)란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공자도 통곡했다

2천년 동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 제도를 공식적으로 지배한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도 혐오범죄의 칼날을 온전히 피해가진 못했다. 춘추전국시대 유가(儒家)는 제자백가 가운데 한 유파에 지나지 않았다. 공자는 평생 천하를 떠돌며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지만, 상객(上客)으로 대우는 받았을지언정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공자의 계승자를 자처한 맹자도, 자기 시대에는 묵적(墨翟)의 이타주의와 양주(楊朱)의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면서 세태를 비난했다. 그러나 장자와 같은 사상가는 유가의 구성원을 두고 남의 무덤이나 도굴하면서 먹고사는 비열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썩 달가워하지 않기도 했다.

중국에서 유교가 탄압을 당한 가장 뚜렷한 예는 분서갱유(焚書坑儒)일 것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제국의 통치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도량형의 통일이나 문자의 정비 등등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타고난 기회주의자(?)들인 유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진시황의 사상 검열에 대해 비난하는 선을 넘어 일부 유가 지식인들은 진시황의 허영심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했다. 그런 선에서 그쳤다면 무마되었겠지만, 교만한 그들은 진시황이 무지하고 아둔하다며 공공연하게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분서갱유가 일어났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솔직히 진시황이 천하의 유가 경전을 다 불태웠고, 천하의 유가들을 다 생매장했다면 후대 어떻게 유가가 존속했겠는가.

중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유가 지식인들의 패거리 정치는 대개 막장을 치달았다. 송나라 때의 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는 〈붕당론(朋黨論)〉을 지었다. 붕당의 긍정적인 효과를 갈파하기 위해 쓴 글이지만, 속내를 뒤집어 읽으면 그만큼 소인배들의 붕당 정치가 일상적이었고 썩을 대로 썩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유가의 불교 탄압이 횡행하기도 했지만, 유가들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사상적, 정치적 쟁투에 견줄 바는 못 된다. 같은 유가들끼리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다가 자파들끼리의 살육으로 이어진 참극을 역사는 사화(士禍)라 부른다.

소인배들의 붕당 싸움에서 빚어진 조선조 당쟁을 두고 마냥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단 혐오의 칼끝이 밖을 향하다 내부로 변침한 이 어두운 역사는 유가에 의한 유가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그들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이단을 찾아내 불구대천의 원수로 매도해 칼질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화' 와 '옥사' 는 정치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유가들 사이에 벌어진 이념 투쟁, 변질된 내부의 유가 탄압이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나와 다르다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적이었고, 박멸할 대상이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경축 법요식에서 어느 야당 지도자가 합장을 거부하고 관불(灌佛)을 외면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가 독실한 개신교인이라 해서 이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불자는 없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앙심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사회 전역에서 벌어지는 이 혐오와 적대감의 회오리는 양상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과연 나는 그런 광풍에서 자유로운지 작은 일에서부터 반성해볼 일이다. 그 광풍이 내가 적대하는 세력만 휩쓸어버리지 않고 역풍이 되어 내게로 몰아칠 때 말법(末法)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소설가〉

염불 인생들의 보물!

수 만번의 내 염불! 내 귀에 힘들면 스트레스, 만성피로!

내 염불 테크닉이 잘 먹혀 내 귀에 편안하면 신명속에 힐링!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현장체험 후 구입!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대까지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명품소리훈련 강사)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올리는 글

소승은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이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시게 되어 1988년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불연으로 사리탑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하고 바로 봉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인사하고 들어가셔야 하신다며 전국 사찰로 파발을 보내면 참다운 당신의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제자들을 다 만나면 알려줄 터이니 그때 봉안하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아 소승의 망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 일단 지면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제자이신 한국불교대덕큰스님들께 진신사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적멸보궁 오봉사 | 주 지 **군맹서진** 합장

진신사리친견 안내

개별친견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7월은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서울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에서 오전 8시 버스출발 (왕복 2만원)
- 친견 예약은 02-532-0012(강남불교대학) 또는 홈페이지(http://gangnambu.org)에서 3일전까지 예약 바라며 예약하지 않거나 10시 이후에 오시면 친견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친견
- 30명 이상의 단체친견일 경우,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Tel. 02-532-0012 강남불교대학

오봉사 진신사리의 유래는 유튜브채널 강남불교대학에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방정토 꿈꾼 무애자재 재가 선지식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⑬ 향산거사 백낙천

황제는 얼굴 가린 채, 그녀를 구하지 못하여
머리 돌려 피눈물을 비 오듯 흘리네.

황제의 마음은 자나 깨나 귀비를 그리는 정으로 가득 찼네.
행궁에서 달을 보니 절절이 마음이 아려오고
밤비 속에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 황제의 애간장을 끊게 하네.

연꽃은 귀비의 얼굴 같고 버들은 그녀의 눈썹 같았으니
이들을 바라봄에 어찌 눈물 흘리지 않으리.
봄바람에 복숭아꽃 살구꽃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비에 오동잎 떨어질 때면, 그리움 더욱 사무치네.

위의 시는 백낙천(白樂天, 772~846)이 쓴 '장한가(長恨歌)' 의 일부분이다. '장한가' 는 806년에 지은 120행의 긴 서사시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다룬 시다. 안록산의 난(755년)으로 현종이 사천성으로 피난 가는 도중, 나라를 망친 원인이 양귀비 때문이라는 신하들의 빗발친 상소로 어쩔 수 없이 양귀비에게 죽음을 내린다. 백낙천은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과 현종의 양귀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시로 묘사했는데, 감히 백낙천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다.

시의 귀재, 백낙천은 어떤 인물인가? 백낙천은 그의 자(字)이고, 본래 이름은 백거이(白居易)이다. 중국 문학사와 불교사에서는 '백낙천' 으로 불린다. 낙천은 이백 · 두보 · 한유와 함께 당나라 4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송(唐宋) 600년 역사에서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일 정도로 그의 시세계는 독보적이다. 낙천의 시세계는 통속적인 언어 구사와 풍자에 뛰어나며, 평이하고 유려한 시풍으로도 알려져 있다. 낙천은 시를 쓰면, 글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읽어주어 이해되는가를 물었다고 한다. 한편 불교적으로는 자유를 희구하는 정신을 드러내면서 불교의 정토세계와 노장사상이 담겨 있다.

낙천은 산서성(山西省) 태원 출신으로 당나라 덕종 때(798년) 진사에 합격해 관직에 몸담았다. 그는 40세 무렵, 모친과 어린 딸을 잃은 후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낙천이 불교에 귀의한 후 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선사들과 교류가 있었다. 선종법맥도에도 마조의 제자인 흥선 유관(興善惟寬, 755~817)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곧 낙천은 마조도일의 문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낙천과 선사들과의 몇가지 일화를 통해 그의 불교관과 선경(禪境)을 보자.

낙천이 활동하던 시기인 8~11세기는 선이 활발하던 시기로, 문인들과 유학자들이 선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선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시와 문학 속에 자유를 테제로 하는 선이 대중화되었다. 당대는 중국문화의 전성기로서 특히 당시(唐詩)는 중국문학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세 동양의 봉건적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존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중국선 특유의 압도적인 인간신뢰 정신에 관심을 둔 시인으로 왕유(王維) · 두보(杜甫) · 백낙천 · 이하(李賀) 등이다. 여기에 낙천도 포함된다. 낙천은 당시 시인들 가운데 불교관과 선관이 매우 뚜렷이 나타나 있다.

젊은 시절, 백낙천은 강직한 성품으로 좌천되는 일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지방의 여러 선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한번은 항주 자사(刺史)로 있을 때, 그 지방의 고승 조과 도림(鳥窠道林, 741~824, 우두종의 경산 법흠 제자)의 사찰을 방문하였다. 도림은 새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한다고 하여 '조과(鳥窠)' 라고 하였다. 낙천이 선사에게 말했다.

"스님, 제가 평생에 좌우명 삼을 만한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다."
"모든 악한 행동을 짓지 말고 많은 선한 일만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그거야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알기는 쉬워도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일세."

이 사구게는 〈법구경〉뿐만 수많은 여러 대승경전에 언급되어 있다. 이 게송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 여섯 분의 과거 부처님께서 공통으로 훈계하는 가르침이라고 하여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등록〉〈오등회원〉〈지월록〉 등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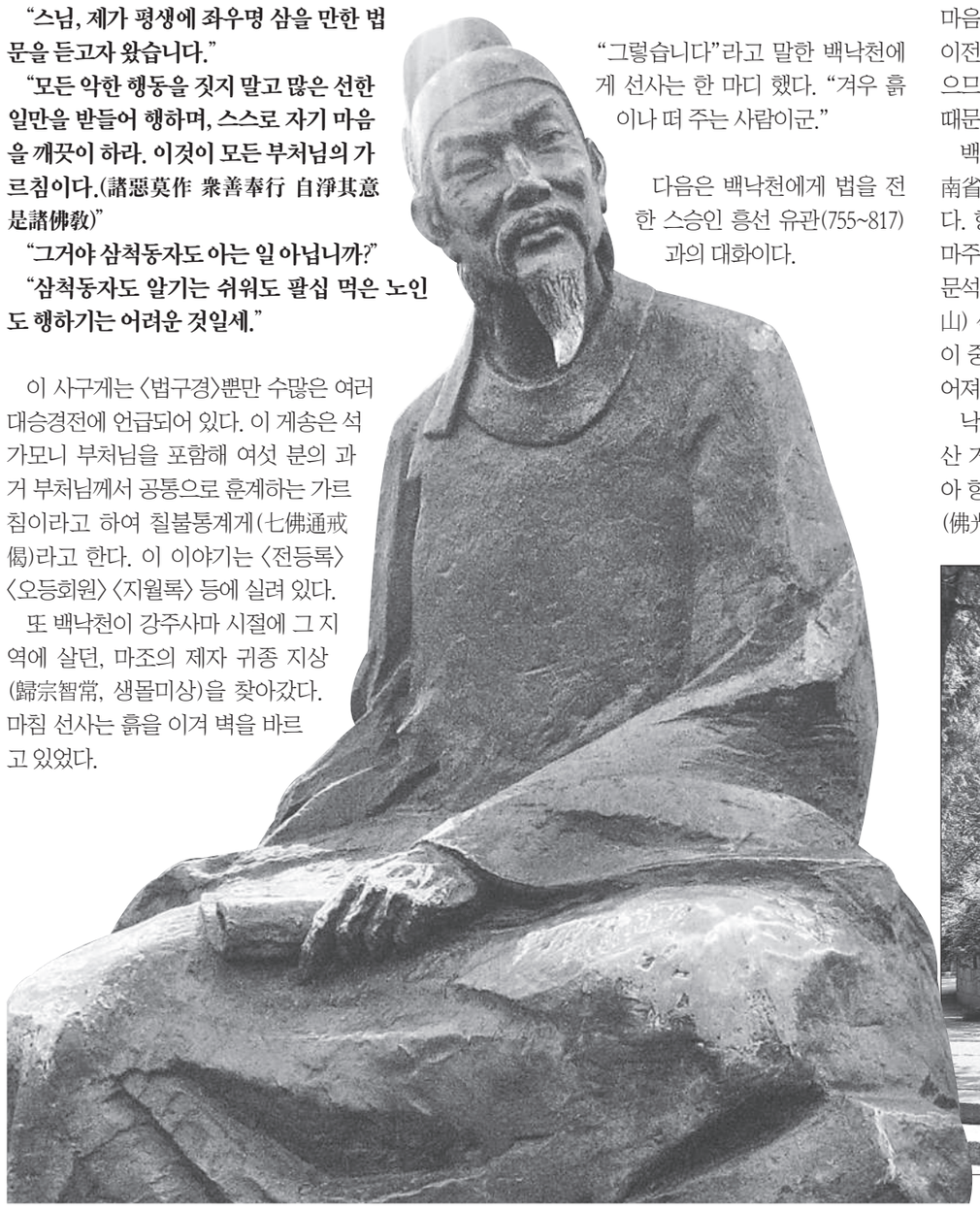
또 백낙천이 강주사마 시절에 그 지역에 살던, 마조의 제자 귀종 지상(歸宗智常, 생몰미상)을 찾아갔다. 마침 선사는 흙을 이겨 벽을 바르고 있었다.

작업 도중 선사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대는 선비인 것 같은데, 군자인가, 소인인가?"

백낙천은 겸연쩍은 듯 "저는 군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답했다.

선사가 흙손으로 흙 판을 두드리자, 백낙천은 얼른 흙을 떠서 선사의 흙 판에 올려주었다. 선사는 흙을 받고 말했다. "그대가 그 유명한 백낙천인가?"

당나라 4대 시인 중 한 명
쉬운 언어로 날카로운 풍자
모친 · 딸 잃고 불교에 귀의해
벼슬 물러난 뒤 향산사 기거
여민 선사와 '九老社' 결성해
승속 넘어 수행 · 신행에 매진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백낙천에게 선사는 한 마디 했다. "겨우 흙이나 떠 주는 사람이군."

다음은 백낙천에게 법을 전한 스승인 흥선 유관(755~817)과의 대화이다.

낙천이 유관에게 물었다. "마음이 이미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마음은 본래 손상이 없거늘 어떻게 닦을 필요가 있겠는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논하지 말고, 일체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눈동자에 아무 것도 넣을 수가 없다. 금가루가 비록 진귀한 보물이지만 눈동자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수행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범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범부는 밝음이 없고, 성문과 연각은 집착을 한다. 이 두 가지 병을 여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수행이다. 참다운 수행이란 부지런해도 아니 되지만, 잊어버리고 있어도 않된다. 부지런하면 집착에 가깝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무명에 떨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요긴한 점이다."

조사선에서는 선과 악에 있어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말라고 한다. 곧 선과 악이 일어나기 이전 본성에 입각해야 함이요, 본래성불되어 있으므로 굳이 수행을 가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낙천은 만년에 벼슬자리를 내놓고 하남성(河南省) 낙양에 위치한 향산사(香山寺)에 머물렀다. 향산사는 용문석굴과 이하(伊河)를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다. 즉 중국의 3대 석굴중 하나인 용문석굴은 이하를 중심으로 서산(西山)과 동산(東山) 석굴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용문석굴은 서산이 중심이고, 이하의 다리를 건너 동산 석굴이 이어져 있는 가운데 향산사가 위치한다.

낙천은 말년에 향산사에 머물렀다고 하여 '향산 거사' 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 향산사를 중수한 뒤, 마조의 제자인 불광 여만(佛光如滿, 생몰미상)이 향산사 주지가 되는데 일조한다. 이들은 이곳에서 재가자를 포함해 여만 선사 등 9명이 도반이 되어 구노사(九老社)를 결성해 음영임천(吟詠林泉)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낙천은 말년, 그가 정착한 세계는 무량수불 · 아미타불 서방 정토세계였다. 그는 구노사 외에도 148명의 가까운 사람들과 '상생회(上生會)' 라는 모임을 만들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과 같은 자세로 좌선하고 내세에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다. 낙천의 염불게를 보자.

"내 나이 일흔 하나, 다시는 풍월을 일삼지 않으리./ 경전을 보자니 눈이 불편하고 무엇으로 심안(心眼)을 제도한 제도할 것인가?/ 한 구절 아미타가 있도다.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아미타'/ 화살같이 바빠도 늘 아미타를 떠나지 않네."

말년에 낙천은 도반들과 결사를 하며, 수행과 신행을 겸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도반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좋은 선지식과 도반에 둘러싸여 있다면,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다. 요즘은 불교신자들이 활발하게 경전 공부를 하고, 참선하는 이들이 많다. 백낙천처럼 승속을 뛰어넘어 도반 인연을 만들어 공부에 매진하거나 보시행 등 결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여만 선사가 먼저 열반에 들자, 구노사 도반들은 향산사에 여만의 묘탑을 세웠다. 백낙천은 향산사에서 18년을 머문 뒤, 이곳에서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임종 무렵, 자식들에게 '여만선사 묘탑 옆에 자신을 묻어 달라' 는 유언을 남겼다. 자식들은 낙천의 유언에 따라 846년 그를 여만 선사 옆에 묻었다. 낙천의 묘는 향산사 도량의 지척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여만 선사의 묘탑은 없고 낙천의 묘만 있는데, '백원(白園)' 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낙천의 묘지에 찾아가 그의 문학성을 기리거나 시세계를 흠모하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사진 왼쪽)중국 사천성 두부초당에 조성된 백락천 동상과 (사진 오른쪽)하남 향산사 옆에 위치한 백낙천의 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이타적 삶 살면 건강히 살 수 있다"



新 불교사자성어

㉕ 요익중생(饒益衆生)

'요익중생(饒益衆生)' 은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준다' 는 뜻이다. '요익중생(饒益衆生)' 이라는 말은 보살행 · 자비행 · 이타행 · 중생제도 · 중생교화 등과 같은 말로서, 특히 〈화엄경〉에 많이 나온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여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의미)' 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의미를 '중생제도' 즉 '이타행'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좁은 소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삶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투쟁하며 남과 싸워야 한다. 모든 싸움과 투쟁은 이기(利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기와 악은 그 뿌리가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이기주의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기사건 최다 발생국이다. 사기 행각을 벌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를 확장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는 행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행과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남과 열심히 싸워야 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투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투쟁과 갈등의 원인은 모두 이기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개인 이기주의' , '집단 이기주의' 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투쟁적인 것은 이기주의가 팽대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소아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행, 이타적인 삶이 곧 요익중생(饒益衆生)이다. 요익중생의 방법은 바로 '보살행' , '자비행' , '이타행' 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 이기도 하다.

남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은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다. 희열과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고 가득해진다. 남을 위하는 이타행, 자비행, 보살행은 어디를 가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한다.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한다. 반면 이기적인 삶은 삭막하고 각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깍쟁이를 양산해서 사회를 비인간적인 사회로 만든다.

며칠 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몇몇 아는 보살들이 최근 남편을 다 잃었다는 것이다. 모두 아무런 증세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암으로 죽는 바람에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그들은 돈이 많소?" 돈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네. 돈이 많다면 좋은 일, 이타행을 많이 하면 되고, 이타행을 많이 하면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더니, "돈들은 많은데 인색하고 좋은 일은 할 줄은 모른다."고 했다.

의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타행, 이타적인 삶을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첫째는 무언가 가슴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기쁨을 느끼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면 건강할 수가 없다. 마음이 항상 불안, 초조하기 때문이다.

요익중생은 불교도들의 기본 정신이다. 특히 보살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도들에게는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익중생의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보시(布施) · 애어(愛語) · 이행(利行) · 동사(同事)이다. 보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할 것이 없고, 애어는 '부드러운 말' , '교양 있는 말' ,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말' , '아름다운 말씨' 등이다.

이행(利行)은 이타적인 삶, 이타행을 뜻한다. 동사(同事)는 '함께 하는 것' 인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함께 하면서 점점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돈이 있어야만 요익중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물음은 답에 답은 물음에 있다"



격절록 강설

㉕ 설봉고간 평창 1

[評唱 1]

師云. 雪竇拈來 也是好心 也是不好心. 何故 一手擡 一手搦. 僧問雪峯 "古澗寒泉時如何" 峯云 "瞪目不見底" 僧云 "飮者如何" 峯云 "不從口入" 後人只管用作不答話會 作恁麼去就 驢年夢見. 汾陽謂之借事明己.

설두의 염(拈)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억눌렀기(一手擡 一手搦) 때문이다.

어떤 스님이 설봉에게 물었다.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

스님이 말했다.

"마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단지 "대답하지 않겠다(不答話)"고 한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다면 나귀 해나 되어서야 꿈속에서라도 보게 될 것이다. 분양(汾陽, 분양선소)은 이를 일러 '예나 비유를 빌려 자기를 밝힌 것(借事明己)' 라고 한다.

古澗寒泉時如何 瞪目不見底 此明他脚跟下事. 雪峯是一千五百人善知識 依前用他問處 答道 瞪目不見底. 為他問道脚跟下事. 似古澗寒泉相似 這老漢不妨親切. 古人道 "問在答處 答在問處" 不見僧問雲門 "佛法如水中月是否" 門云 "清波無透路" 且道 是同是別.

"옛 골짜기에 샘이 차가울 때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발꿈치 아래의 일(脚跟下事, 본분대사)을 밝힌 것이다. 설봉은 천오백인선지식(一千五百人善知識)이라서 여전히 그가 물은 것에 의해서 답을 해 말하기를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도) 밑바닥이 보이질 않는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물은 것이 발꿈치 아래의 일을 말하는 것인가? 마치 옛 골짜기에 차가운 샘물과 같으니, 이 노장이 아주 친절했다. (그래서) 고인(古人, 남원혜옹)이 말하기를 "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에게 물었다.

"불법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문이 말했다.

"맑은 물결엔 꿰뚫은 흔적이 없다."

자, 말해보라! 같은가, 다른가?

※一手擡一手搦(일수대 일수닉)은 추켜올리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였다는 뜻이다

※차사문(借事問)은 분양선소 선사가 학인의 물음을 18종으로 분류한 것 중의 하나로 예나 비유를 빌려서 묻는 것을 뜻한다.

※"그가 물은 것에 의해서 답을 해 말하기를"이라는 뜻은 그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는 뜻이다.

※問在答處 答在問處(물음은 답에 있고, 답은 물음에 있다)는 선림승보전에 남원혜옹 선사의 말씀으로 전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㉕ 이해의 길 5

모든 것은 '근본'에서…

'근본' 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시비(是非)를 초월한 단어다. 그런데 그 단어가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종교다. 종교적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면 해당 종교의 이름 뒤에 '근본주의' 라는 용어가 자주 따라붙기 때문이다. 종교적 분쟁이나 갈등은 각자의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에 집착해서 다른 생각과 방식을 무조건 이단으로 취급하고 배척하는 데서 발생한다. 종교에서 '근본주의(根本主義, fundamentalism)' 는 교리의 근본에 충실하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종교에서 '근본' 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과는 다르게, 분쟁과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언제부터인가 '근본' 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섞이기 시작했다. 이런 부적절한 사회적 현상의 영향이 불교에도 조금은 미친 것 같다. '근본불교' 라는 용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불교는 결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가르침도 널리 포용하는, 그야말로 '열린' 자세를 지향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근본 가르침 자체가 본래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불교가 대승불교,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까?

근본불교란 석가모니 붓다가 입멸한 후 100년까지의 불교를 가리킨다. 붓다 입멸 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 붓다의 가르침과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교단은 전통을 지키려는 상좌부(上座部)와 개혁적인 대중부(大衆部)로 분열한다. 다시 상좌부는 10개, 대중부는 8개로 분열하여 총 20개의 부파가 활동하는 부파불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부파는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독립적인 아비달마(abhidharma), 즉 논서를 갖춘다. 근본불교는 이러한 분열이 시작되기 전의 불교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근본불교는 원시불교나 초기불교 등으로도 불린다. 혹은 불멸 후 30년까지, 즉 붓다와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근본불교라 하고 그 이후 100년까지를 원시불교라 구분하기도 한다. 근본불교는 석가모니 붓다의 깨침을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인 연기(緣起)와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의 가르침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와 선불교라는 옷을 입고서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본불교를 다소 소홀히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는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근본불교는 대승불교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불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으니, 어찌 보면 한국불교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건물을 올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일이다.

또한 우리는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근본불교를 소승불교와 동일시해왔다. 소승(hina)은 '열등하다' 는 뜻인데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열등한 가르침이라 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승불교라는 자만과 소승불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근본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낳은 결과다. 다행히 요즘은 소승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고, 빠알리어로 된 〈니까야〉가 널리 소개되어 가공되기 이전의 붓다의 원음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호에서 불교를 100층 건물에 비유하였다. 그런데 '붓다 빌딩' 은 처음부터 100층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 1층을 세우고 차례대로 2층, 3층, 10층, 100층까지 증축한 것이다. 근본불교는 바로 '붓다 빌딩' 의 1층이다.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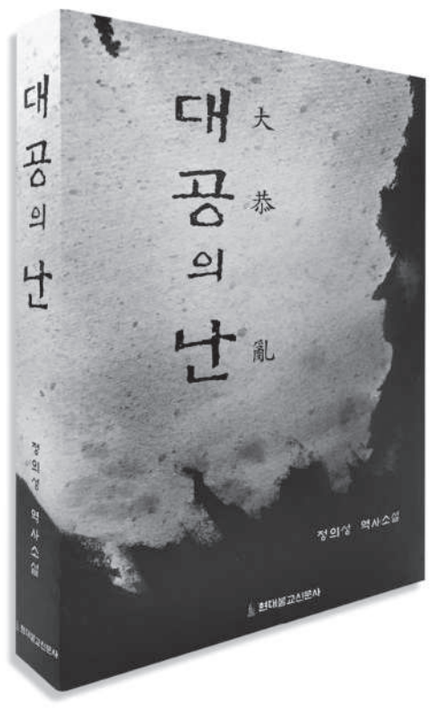
처음 '붓다 빌딩' 을 세우고 증축할 때는 승강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이나 5층을 가기 위해서는 각 층의 계단을 밟으면서 걸어야 했다. 건물이 높아지면서 붓다 빌딩에 승강기가 설치되자 20층이나 80층까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층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모른 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기로 하자. 100층을 올라갈 때도 승강기는 근본불교가 들어서있는 1층에서 타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신임회장에 지현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새 회장에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선임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前회장 심산 스님 후임으로 지현 스님을 선임했다. 지현 스님은 이날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됐다.

이번 이사회서는 정관에 파라미타 회장을 조계사 관리인(주지)이 당연직으로 맡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회장 임기는 조계사 관리인 재직기간 동안으로 변경했다.

한편 회의에는 파라미타 총재인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이사 법경 · 덕조 · 오심 · 수미 · 가섭 · 효진 · 혜솔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39 · 40대 동국대 이사장 환담

오는 7월 18일 이 · 취임을 앞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종단과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원행 스님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차기 이사장 법산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종단과 동국대는 함께 가야 한다. 종단과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학교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이사장 스님께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다.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이사장 이 · 취임식을 전현직이 함께 하는 것은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학교 안정에는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의 노력이 크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장 법산 스님은 "학교 안정은 자광 스님의 공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종단과 협력과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교내 본관 중강당에서 제39 · 40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참회를 바탕으로 수용자 신행변화"

Interview

김행규 신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0년 넘게 교정포교해온 역군
1000일 기도로 무기수 감형도
조직 재정비해 네트워크 구성

"교정현장에서 수용자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포교를 펼치겠습니다. 연합회 조직을 다시 다지고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공불련 등과도 적극 협력해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김행규 신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30년 넘게 불교포교를 이어온 불자다. 직접 수용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는 포교활동으로 올해 특별진급하며, 남부구치소에서 새로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그가 6월 8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제23회 수련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행규 회장은 1994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같은 해 서울구치소 불심회서 수계를 받고 신심을 바탕한 교정교화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불교담당을 하며 수용자 상담, 불서 및 단주 보급 등을 통해 심성순화에 앞장섰다. 사형수들과 함께한 1000일 기도로 3명을 무기수로 감형받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 회장은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사무국장 등 연합회의 굳은 일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연합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합회는 서울경기강원, 충청, 영남부산, 호남제주 등 전국 4개 지부에 40개 지회를 거느린 조직이다. 창립 25년을 맞은 현재 초창기 3000여 명의 회원 수는 2000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

김 회장은 전국조직 안정화부터 나서겠다고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신심을 다시 고취시키고 중앙에서 지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포교원, 중앙신도회, 공불련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 중점사업으로 △전국지회 의견 청취 △조직 개편 △유관기관 및 언론 네트워크 구성 △정기법회 개설 등을 들었다. 특히 공불련과 같이 정기적인 법회 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김 회장은 "교정인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제하며 "수계법회를 비롯해 선지식 초청법회 등 참여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수용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에는 불자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포교의 마음이 곧 사회를 위하는 일이고, 자비와 참회의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이웃도 살피는 교정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무대 위에선 우리 모두 청춘"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연극제 성황리 폐막



제3회 시니어연극제에서 공연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연극단.

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끼를 발산하는 무대, 서울시니어연극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5일 복지관 4층 소극장 종로마루홀에서 '제3회 서울시니어연극제'를 개최했다. 시니어연극제는 사회참여 욕구가 높은 어르신들의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고, 연극을 통해 노인문화 소외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노인주도의 연극문화축제다.

이번 연극제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연극단 △송파복지센터 극단 앙코르 △우리마포복지관 극단 오늘 △서울노인복지센터 극단 오색단비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한국시니어스타협회 △마스터프로덕션 △영주시노인복지관 청보리 연극단 △극단 좋은 사람들 △느티나무은빛극단이 참여했다. 각 연극단은 고독사와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 사랑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5일간 공연장은 총 누적관객 2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연극제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대상의 영예는 '우리마포복지관 극단 오늘-우리 함께 살아요'에 돌아갔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비롯해 감정선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학老愛', 우수상은 '영주시노인복지관 극단 청보리'가 수상했다. 또한 최우수연기상은 대학老愛 이규숙 어르신이 차지했다.

정관 스님은 "연극제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열릴 제4회 연극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앞으로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고 활동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힘겨운 병마에 도움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7월 치료비 지원금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11일 법인 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추성호 · 김남명 홍보위원이 참석해 SRC재활병원 오유나 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번 달 선정환자는 김수정(8 · 가명) 양이다. 뇌병변 1급 장애의 김 양은 현재 목 가누기 정도만 가능하며, 강직이 심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없다.

신성민 기자

정토사 가득 채운 하모니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정읍 정토사(주지 일묵)는 7월 7일 정토사 앞마당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지공 스님, 법성 스님 등 24교구 소속 스님들과 신도, 임민영 정읍 부시장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성 산불피해 700만원 지원

광주불교연합회, 이경일 군수 만나 전달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7월 5일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해 이경일 군수에게 산불피해 복구기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이 참석했다. 도계 스님은 "산불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광주불교인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이니 잘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새로운 세상 100세 천세를 고통 없이 도인신선으로 사는 법. 생로병사의 근본, 육신 속에 구천의 쇠문을 열어 혜명과 성풍이 하나로 부처되어 귀신 잡신 병부사자 저승사자 제도하여 생사를 초월 영과 혼이 장수하는 타심통 천하제일의 육신통대법회

인생에 최대이슈 종교를 수행하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 외 근본인 마음심(心)자로 모든 종교가 탄생되었으나 성직자들의 일그러진 법도로 탈색되어 호국불교윤리의 이념은 없어지고, 철퇴 맞아 한생을 보내는 것은 오직 마음에 부처는 천경, 만경, 염불, 독경, 참선, 명상, 점술 각종 수행으로 찾지 못하는 혜명은 오직 부모, 조상의 업연으로 신장이 귀신마장들과 저승사자, 명부사자들에게 시켜 잘못된 수행이기에 이 길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내육신 속 구천의 쇠문이 열리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허공의 진광 흰 눈이 내리는 기틀이 되는 대도가 성불이자 도통인 것이다. 오직 부처된 자만이 천신, 만신, 귀신, 잡신, 저승사자, 명부사자들을 제도 할 수 있는 주문만이 하늘천도 우주천도, 인간천도, 종교천도, 조상천도, 청춘몽달, 태중유산 수자영가제도하는 사자주문과 부처님사성제 주문만이 영과 혼을 천부팔역으로 보내 구천세계의 쇠북을 뚫어야 일류 스승 성직자, 성불 도통하여 만법을 통솔한다. 이제 칠칠 49제는 없어지고, 70일 10제만이 모든 조상들이 천도되는 것이며, 제십전륜성왕은 세존본심이고, 석가모니부처님만이 모든 영혼을 사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기해년 백중10제는 다시없는 기회이며, 인간의 모든 고뇌와 각종 질병은 모두 귀신의 장난으로 사업부도, 가정불화, 학업마장, 단명, 고질병은 해탈 못한 영가들과 특히 청춘영가, 육아모태유산 빙의신인 것이며, 오직 부처님 사성제 진법주문만이 저승사자 일체 영가마장을 다스린다. 하늘천도, 지구천도, 종교천도, 조상천도 자신이 천도되어야 남의 조상도 천도되는 것이다. 이 법은 비인도전이므로 눈과 귀가 있는 자 입문할 지여다. 나미아불타불

心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입제 : 2019년 7월 21일 일요일 •해제 : 7월 22일 해시 월요일 •준비물 : 필기도구, 무박 2일 •기도비 : 교제대 포함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H.P 010-9292-3110 / 010-9781-4449

천기공사 불선도육신통천문도통회총본산 달마용천사 환성 합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3호 | A13 | 전면광고

맷돌이나 숫돌이 깎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림보훈》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사주명리, 실전혜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 (5개월) 기문둔갑 : 150만원
사주명리 : 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특수한 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신차·외제차·중고차

#리턴 포인트로 100% 캐시백 받으세요#
(물건을 사면 10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찻값에 10%만 내시고 할부 끝날 때까7지 공짜고 타세요.
❷ 1년 지나면 소멸되는 자동차 보험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❸ 삼성, LG 가전제품도 100% 캐시백 받으세요.

010-9469-125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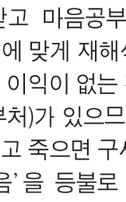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 〈**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경남종무원 - 창원
010-9422-1233	010-4582-3366

소小 평平 원院

소 소중한 인연들의 평 평안과 치유를 원 기원하는 곳



소암 김지엽

사주명리
신점신병 전문
자녀문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1길 6-9

010-8007-1680 / 010-4254-8274

대중불사 인연을 모십니다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804번지
- 토복건축허가 득하였으나 건축자금 8천만원이 부족하여 지면으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천일종 청룡암 | 주지 도광
농협 351-0678-9831-53 한상오
010-2385-3789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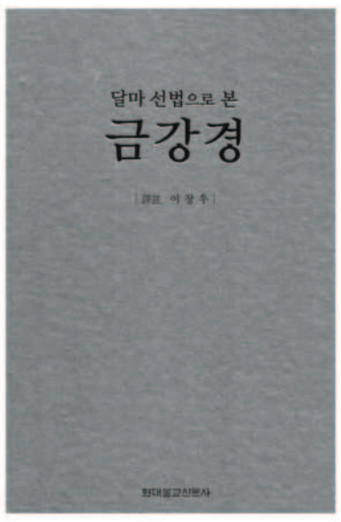
02-733-5665

지장성모암 마을 동참

지장성모암 마을 동참하실 분

- 20평 개인암자 건축비 3천-5천만원
- 지장보살어머니 • 소불.대불.가족불
- 토속적인 시골마을처럼 설계함
- 대전지역불자 청계 오골계 초란 무료

우체국 300517-01-001518
조계종만불교종책원
043-744-9997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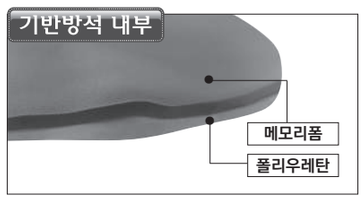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3호 | A14 | 전면광고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움을 모르나니 슬기로운 이는 먼저 욕심을 버리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4 수원빌딩 2층 은혜사
●총 평수 60평 ●최상의 위치. 북한산 입구
●전세 3억 / 보증금 1억 5천

연락처 010-5384-6063
신도회장 010-2763-2767

임야안내

●위치 :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임야 14,600평 정도
●가액 : 1억 1천만원
●사정 상 급매

010-8666-6210

사찰(급)안내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3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충남
◎ 부지 :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석불 1억 5천만원 철치함
●가액 : 5억(대출 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1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포교당급매

●위치 : 부산 기장 역세권 시장 3분. 역사 2분 거리
●3층 건물. 2층 80평. 3층 주택 50평
●삼존불 지장독불 시설 완벽 옥상 사용 가능
●가액 : 2층 보증금 2천/월 60만. 3층 보증금 1천/월 50만
●2층만 하여도 됨
●기장에 이보다 싼 건물 없음

010-6520-5859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가액 : 6억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위치 :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망좋은 사찰
●대지 : 350평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가액 : 13억 5천만원
●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010-3269-1023

사찰안내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대지 : 90평
●건평 : 1층 70평. 요사 2층 30평. 법당
●주차편리. 공기최상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26번지
●삼성아파트 후문/우방아파트/남양아파트 옆 도로 접
●재개발 지역. 전 162평. 옛날 단독주택 건물 약 80평. 단층 상가식. 전포 3칸
●창고 겸 생활하며 사주 철학 영업할 수 있음
●가액 : 7억 5천

주인직 010-8666-6210

전국사찰안내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별장같은 토굴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자락
●친환경 현대식 목재건물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앞, 뒤 소나무. 10대 이상 주차 가능. 주차장 완비
●가액 : 2억 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토굴임대안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남한강변)
●건물 : 약 50평(법당. 큰방. 거실. 중간방2. 주차공간 넓음)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10-3188-0511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진전면 오서리
●법당 : 38평 ●요사 : 65평
●대지 : 1천평 ●임야 : 4천평
●가액 : 12억(대출 2억 5천)

010-4547-4990

사찰/포교원안내

사찰
●위치 : 종로구 평창동 54-1
●건평 : 약 70평
●건물1 : 방3. 욕실2. 다용도실
●건물2 : 황토방1. 욕실1 주방. 거실. 다용도실
●건물3 : 법당. 원룸1
●전 : 약 200평. 5필지
●주차 약 10대 가능
●가액 : 19억

포교원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93-1 A동
●4층 건물. 근린상가
●건평 : 약 270평
●주차 약 9대 가능
●대지 : 약 108평
●가액 : 29억

010-2325-1014

포교당안내

●위치 : 경북 포항 남구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다량주차 가능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일본포교당(급)안내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3545-5060
080-5358-5060
070-8836-5060

사찰안내

●위치 : 대구 시내
●대지 : 20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40평
●산신각 : 10평
●묘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대지 : 360평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4억

010-4583-4895

포교원안내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지 : 355평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목조단청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수행관(기도처)안내

●위치 :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21
●아주 조용한 산사. 면소재지. 도보 가능함
●수행자(기도인) 딱 맞는 수행관 안내합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한옥독채가 있습니다.
●금액은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 · 월세 가능

010-5882-2452
010-5807-2452

포교원안내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자락(일명 절골)
●국도에서 5분거리. 산속 교통 편리(2차선 아스팔트)
●대지 : 전. 임야 포함 약 1600평
●요사채 1동. 창고 1동
●지리산 정상 능선이 한 눈에 다 보이는 아담한 곳
●가액 : 5억원(가격절충 가능)

010-5616-3177
010-2587-4377

사찰(급)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서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120평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가액 : 3억 3천 5백만원(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당안내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3층 건물 중 2층 전체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사찰안내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육지원청에서 800m)
●부지 : 127평 인법당으로 당장 법회를 볼 수 있음
●스님 연세가 80이 넘어 양도하려 함
●가액 : 2억 1천만원(직접 절을 운영하실 분은 절충가능함)

010-7315-2525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로변(주차 무제한)
●건물 : 주택1층. 방2. 주방1. 화장실1. 창고3
●법당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종합탱화 모심
●보증금 5백만원 / 월세 33만원 / 시설비 3백만원
●몸만 오시면 됨. 건강 상 급매
●스님. 보살. 철학 적합

010-8835-1237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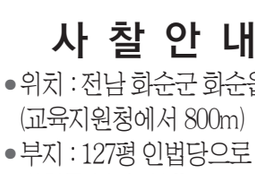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日, 불단 속 1만기 오륜탑 발견

중세 민간신앙의 중요자료로 판명, 특별공개 예정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진언종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高野山)에서 1만 수천 기의 목조 오륜탑(五輪塔)이 발견됐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현지 언론들은 7월 1일자로 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고야산문화재보존위원회는 7월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야산 산내사찰인 엔츠지(圓通寺)에서 에도시대에 납입된 목조 오륜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엔츠지의 대중스님들이 본당의 수미단 밑에서 16개의 대형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모두 봉인돼 있었고, 이 중 봉인되지 않은 상자와 뚜껑이 파손된 상자 2개를 개봉해 총 752기의 목조 오륜탑을 발견했다"고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륜탑은 오대(五大)를 상징하는 다섯 도형을 모아 만든 불탑으로, 밀교에서 중요시되는 불탑양식이다.

발견된 오륜탑들은 대부분 동일한 크기로 높이 약 9㎝, 폭 3㎝의 크기다. 표면에는 각각 오대를 상징하는 범자가 쓰여 있다. 일부 탑은 미완성, 혹은 범자가 쓰이지 않은 형태로 발견됐다. 탑의 저부에는 복장용 구멍을 주변으로 '8만4천탑' 이라는 문장, 혹은 보시자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 복장으로는 연기법송(緣起法頌)의 사구게를 사경한 종이가 나왔다.

탑들이 보관돼 있던 상자들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올라오는 높이로, 이 중엔 상자를 봉인한 날짜, 혹은 내부 탑의 개수를 밝힌 묵서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를 어림잡아 볼 때 미개봉분의 상자까지 모두 더하면 1만 수천 기, 혹은

고야산 산내사찰 엔츠지서
에도시대 납입된 탑 추정
신앙적 폭넓은 유대 결과

수만 기의 탑이 조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묵서를 통해 가장 마지막에 봉인된 상자는 1836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야산의 유물을 보존, 연구하는 박물관 '고야산 영보관' 측은 이 발견에 대해 "이 탑들은 옛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불사리를 모신 8만4천기의 탑을 세웠다는 전설에서 기인한 조탑신앙의 하나인 팔만사천보탑(八万四千□塔)"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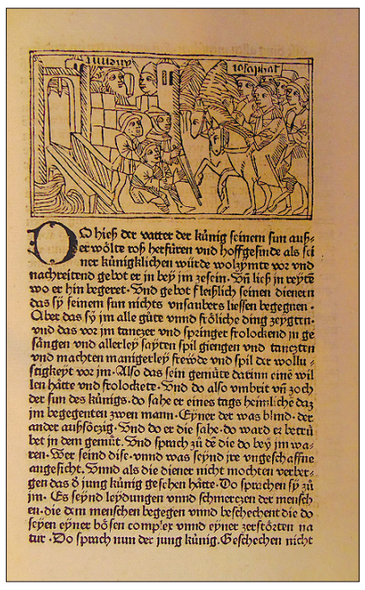
기자들에게 오륜탑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에다 류쇼 진언종 종무총장.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영보관 측은 또 오륜탑들의 목질과 조각방식, 탑 표면에 남은 범자들로 추측해 "탑들은 모두 고야산 내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조탑신앙이 있었던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를 중흥한 고승 쵸겐(重源)은 오륜탑들이 발견된 엔츠지의 중흥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사찰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영보관 측은 이어 탑에 남은 기록들과 발원문 등을 통해 "고야산에서 전국으로 유행수행을 하는 유행승, '고야히지리(高野聖)' 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를 받는 대가로 고야산에 탑을 모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를 통해 영보관은 "전국 각지를 유행했던 고야히지리들과 당시 서민들 간의 신앙적인 폭넓은 유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고야히지리들의 포교실태에 대한 실마리로, 망자의 사후에 대한 민간신앙과 고야산의 연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민속자료"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발견된 탑들은 보존처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야산 영보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가톨릭 성인 '요사팟'은 석가모니?



15세기경 독일에서 제작된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판본. 삽화는 부왕을 교화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오는 성 요사팟과 제자들. 사진출처=스크롤 인디아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부처님 생애 번안된 것
대영도서관 연구원 강조
"보살 요사팟으로 변화"

불교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근대의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가 번안돼 중세에 전해졌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7월 4일 인도의 인터넷 매체 '스크롤 인디아' 는 대영도서관 제이나 이그뉴마 연구원의 칼럼을 소개했다.

서양과 불교의 첫 접점의 증거로 꼽히는 것은 2세기경 쿠샨제국의 금화다. 불교를 믿었던 쿠샨의 황제 카니쉬카는 부처님을 금화에 새기고,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부처님을 위하여" 라는 글귀를 넣었다. 제이나 연구원은 위의 예시를 전하면서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세유럽에서 부처님의 생애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번안돼 전해졌으며, 큰 인기를 끈 끝에 '성인' 으로 추앙돼 교회에서 기념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이 성인으로 등장하는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이야기는 중세유럽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중 하나다. 제이나 연구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으로만 최소 14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10세기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스어판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이야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 요사팟이라는 성인으로 각색되어 등장한다. 요사팟(Josaphat)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부처를 이루기 전의 싯다르타 태자를 이르는 보살(bodhisattva)이 페르시아어로 '보디사프(bodhisaf)' 로 바뀌고, 다시 음가가 '유자사프(yuzasaf)' 로 변하면서 이것이 그리스어와 라틴어화 되면서 "요사팟(Iosaphat)"이 됐다.

기독교화 된 이야기 속에서, 성 요사팟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고 한 점성가가 왕자가 왕궁을 떠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왕은 왕자를 즐거움이 가득한 궁전에 가두어 두었지만, 궁전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병자와 노인, 시신을 보고선 번민하다가 은둔 수행자 바를라암을 만나 혹독한 고행 끝에 성인이 됐다고 전한다. 성 요사팟은 가톨릭교회에서 매년 11월 27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제이나 연구원은 "성 요사팟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아시타 선인의 예언, 사문유관, 마라와 세 딸, 데바닷따의 해침, 쌍림열반 등의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복원 첫 발 뗀 아프간 고대 불상들

아프간 국립박물관, 2500여 점 불상 복원 나서

고대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였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집권과 내전으로 파괴된 2,500여 점의 불상 복원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7월 2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는 미국 시카고대학과 함께 불상을 복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의 현황을 보도했다.

복원 중인 불상들은 1930년대와 1970년대,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된 핫다(Hadda) 컬렉션이다. 약 2,500점을 넘기는 고대 불상들은 대부분 석회에 모래를 섞어 굳히는 스투코(Stucco)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일부 석조 불상들이 포함돼있다. 핫다 컬렉션은 아프간에서 발견된 가장 풍성한 불상유물로 손꼽힌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모함하드 파힘 라흐미 관장은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불교유물들을 '우상숭배' 라는 이유로 파괴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불상들은 2001년 1월 탈레반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파괴된 불상들을 폐기하라는 명령에도 박물관 직원들은 불상파편들을 박물관 지하실로 옮겨 보관했다. 그러나 약 7,000개로 산산 조각난 불상들을 복원하는 일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미 국무부의 재정지원과 시카고대학 동양학연구소의 인적 지원이 결정되고서야 작업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는 2020년까지 핫다 컬렉션 복원을 위해 78만5000달러(한화 약 9억2000만원)를 지원했다.

동양학연구소장 파비오 콜롬보 박사는 "파괴된 불상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며 복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상 복원들을 위해 복원팀은 파괴된 각 조각을 전산화 한 후 신체부위나 색상, 디자인별로 분류한 뒤 조립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체 작업량이 방대한 탓에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박물관 측은 "현재 완전히 복원된 불상은 한 구이며, 10구의 불상은 거의 완료 단계"라고 작업현황을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복원 중인 불상들을 보고 있는 콜롬보 연구소장.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교토불교회 "보시는 현금으로"

신용거래 늘어나자 반대성명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거래로 불전이나 보시금을 받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에 발맞춰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인 가운데, 전통적인 불교단체 '교토불교회' 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다. 6월 28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불교회의 반대성명을 일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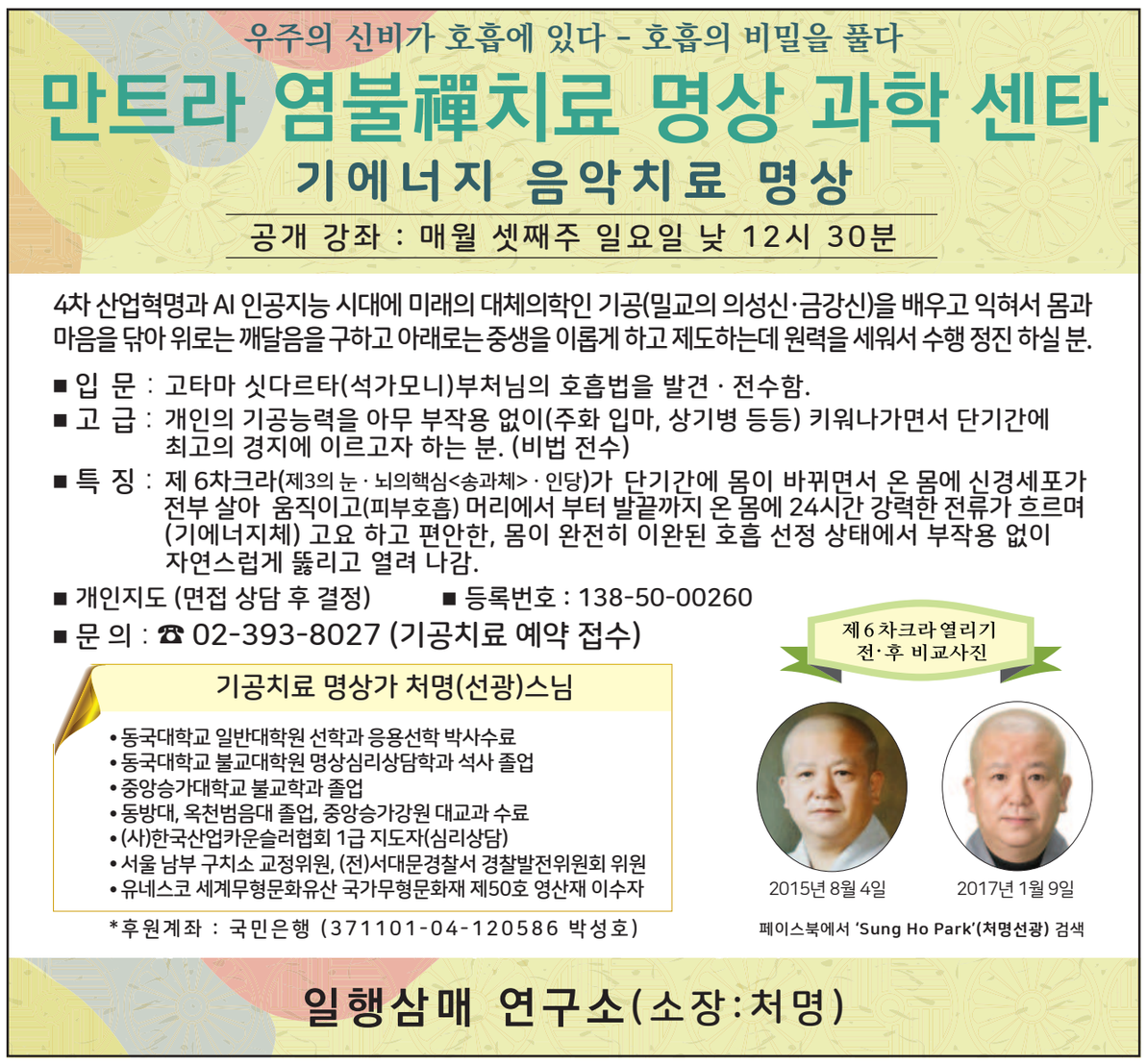
교토부내 약 1천여 개소의 사찰들이 연합한 '교토불교회' 는 28일 "불전이나 보시금 등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전이 신용거래로 오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토불교회 이사장 아리마 라이테츠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거래로 신도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자와 사찰의 금전적인 행동이 외부에 유출돼 종교의 자유가 통제되거나 억압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교토불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불전과 보시를 신용거래로 받는 것은 보시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교토불교회는 "신자의 신심과 마음을 담아 불전에 올리는 것이 보시의 참된 의미다. 불전과 보시금은 영리사업의 수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테츠 스님은 "단지 편리성만을 좇아 신용거래를 사용한다면, 신자와 사찰간의 가시적인 연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라이테츠 스님은 "앞으로 타종교계와도 연계해 종교적인 경제활동이 신용거래에 잠식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11〉 10문–자연명상

강명희

자연의 품이 주는 마음 확장성



세상에는 명상 프로그램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기연민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대상도 사랑하거든요. 서양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심리 프로그램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식의 감정이 많으면 자기연민을 해요. 사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조건에 있는 대상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이고 뭐고 없다면 내가 꽉 차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관념이 마음에 붙어서 뭉텅이로 있으면 연민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약간 느슨해져서 하나씩 보여야 그 사건의 팩트가 보이고 그 팩트 속에서 나의 시달림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순화되어 사랑이 넘치면 자기연민 안 합니다.

저는 20대에 화두를 깼습니다. 그런데 업식은 그대로 있더군요. 사람들은 깨달으면 번뇌에서 완전 해탈하고 인격체로 거듭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부를 깨달을 뿐이지요. 관통해서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없습니다. 심연이 워낙 넓고 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세세생생 쌓아놓은 엄청난 마음이 그리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냐고 물어요. 사는 게 수행이지요. 다행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연명상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다거나 슬픈 일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다 저장되는데, 의식이 넓게 확장되어 있으면 저장이 안 됩니다. 티격태격 부대낀 것들을 집어넣어도 마음 안으로 깊게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밀려들어가기는 하지요.

자연에 있는 것들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하늘, 구름, 별, 이런 것들은 저절로 스며들어요.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것들이 깊숙하게 내면의식을 만들어 냅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마음이 정말 오류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쭐대는 마음, 잘못된 정보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먹는 거 욕심내서 꾸역꾸역 먹어서 꽉 차 있어요. 수행할 때는 다 버리세요. 다 오류거든요. 삶도 오류고 내 몸도 오류고 오류 천지입니다. 자연에는 이런 오류를 바꿔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연은 관찰이 아니라 수용이거든요.

자연을 수용하려면 1차적으로 몸관찰을 해서 어느 정도 비워야 합니다. 몸관찰해서 비워진 곳으로 자연이 깊게 들어가면 바깥에 있는 거친 것들을 떨어뜨립니다. 일전에 제주도로 자연명상하러 갔을 때 위장 안 좋은 사람들이 막 토하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마타, 위빠사나가 되는 상태니까 걸을 때 자연이 들어와서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마음이 몸에 들어 있으니 몸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햇볕이 들어오면 머리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래요. 몸에서 냉기가 빠질 때 콧물로 나오거든요.

한 찰나에 마음이 일어납니다. 멀쩡하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금방 가라앉지도 않아요. 마음에는 워낙 알 수 없는 기록들이 많거든요. 자연에 가면 자연의 기운들, 소리들, 하늘, 비, 공기, 바람 이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 내 마음하고 섞이면서 편안해져요. 자연은 침투력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님을 보는 게 침투력이 강할 것 같은데, 자연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내가 괴롭고 슬프고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해도 다행히 그것은 겉마음에 들어오지 속으로 깊게는 안 들어가요. 마음의 표면층에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막 조이고 괴롭히던 표면층의 마음들이 자연에 가면 쪼그마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밀어내거든요.

자연 속 요소, 마음에 스며들어
복잡한 내면의식 서서히 밀어내
있는 그대로의 자연 받아들이고
관념의 틀 깨 마음을 넓혀보자

자연의 수용성 배우자

전에 우리 도반 하나가 명상할 때마다 물었어요. "얼마만큼 해야 돼요? 백일기도는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복식호흡 몇 번 해야 돼요? 자연명상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딱 떨어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명상하면서 관찰할 때는 내 마음이 몇백 년 되는 나무와 같습니다. 주변에서 건물들이 일어났다 허물어졌다,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해도 나무는 그냥 있어요. 성주괴공을 반복하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시간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펄떡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에 엄청나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좁아져요.

자연은 수용성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수용한다고 해서 수용식이라고 해요. 자연에 가면 자연이 나를 안아 줍니다. 내가 센 사람은 자연이 나를 안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자연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에 가도 자연이 내 업식을 키우는 대상이 됩니다. 튼튼해져서 바위처럼 단단해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이 안아 주는 역할을 하니 자연에 가면 내가 그냥 작아져야지요. 자연이 품어주니까 그냥 의지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감정이 쌓이니까 말이 안 되고 눈물이 나오더라는 그 사람이 그래서 자연을 찾았겠지요.

수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요. '아, 수행이 안 됐구나. 내 깜냥이 이정도구나.' 눈으로 보는데 여여하게 안 봅니다. 자꾸 싫은 것 좋은 것 분별하고, 싫은 건 안 해 버려요. 마음이 드넓고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에 되겠습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이 찰나 전의 것을 마음이 다 가져다가 몸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좁혀놓았어요. 마음이 넓어져서 저편까지 가고, 저 사람까지 가서 인식이 넓어지면 너와 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까칠한 사람끼리는 만나면 알아요. 나하고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싫거든요. 서로 피곤해서 피하지요. 그럴 때 나를 사띠하면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찾아서 들어가기는 힘든데, 현실에서는 보이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띠해서 보고, 보면 사라져서 엷어지니까 여유가 생겨서 대상을 마주하게 되지요. 대상이 딱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넓어진 상태니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서 들어옵니다. 대상이 나한테 그 업장을 던졌는데 내가 딱 받은 것이지요. 받을 땐느 힘들지만 받은 만큼 나는 수용하면서 마음이 넓어져요. 의식이 확장돼서 더한 꼴도 봅니다. 그러면 상대는 까칠한 모습을 보여 줄 때 부담감이 없지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내 성질을 다 보여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아 주니까 대상도 좋아지고 나는 확장되지요. 이것이 명상하는 기쁨입니다.

자연명상의 방법

오후에 북한산 너럭바위에 갑니다. 땅 명상, 물 명상, 불 명상, 바람 명상, 허공 명상 중에 어떤 명상을 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바람의 기운이 셀지, 햇빛의 기운이 셀지, 바위의 기운이 셀지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햇빛 명상하러 갔는데 햇빛이 안 나옵니다. 바람 명상 해야지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원래 없어요. 구름이 끼면 끼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교류하고 수용하면 마음이 그것들을 밀어냈다 교류했다 하면서 넓어지지요. 외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막이 수행하기에는 딱 좋은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거든요. 사막 같은 데 가서 몇날 며칠을 우유나 조금 마시고 포대 쓰고 자 봐요. 안 먹어도 자연의 기운들이 들어와서 살립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그런 조건을 마주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땅, 물, 햇빛, 공기, 다시말해 지수화풍이거든요. 자연에 가면 지수화풍의 기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과 마음의 지수화풍 기운들과 결합하여 녹이거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명상의 조건으로 만나는 자연은 가깝게는 목, 화, 수, 금, 토입니다. 넓게는 지, 수, 화, 풍, 공으로 나눌 수 있지요.

자연명상을 할 때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이 워낙 넓고 커서 혼자 가면 압도되거든요. 여럿이 같이 하면 같이 하는 마음이 그걸 막아 줍니다. 자연이 그렇게 크고 넓은데 혼자 감당이 되겠습니까? 산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자연에는 신적인 요소, 신기 같은 게 많거든요.

자연명상할 때도 혼자 바위 같은 데 앉아 있지 마세요. 자연에는 여러 기운들이 많거든요. 선한 마음을 갖고 선정에 들어가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자연명상의 효과가 크지만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자연명상을 하다 보면 오백 년, 천년 된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된 바위의 생명이 느껴져요. 그러니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무엇보다 자연은 평등합니다. 저 태양도, 하늘도, 바람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제가 남미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의식이 옆으로 확장된 것은 느껴지는데 위로 확장된 것은 잘 안 느껴져요. 하늘이 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좌우로 평등성은 많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위아래로 평등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위는 귀의의 대상이니, 하늘에 귀의하지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불교는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은 이치로 보거든요.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한번 버려 보세요. 관념의 틀, 원칙의 틀을 버리세요. 모르겠으면 다 버리면 좋아요. 예전에 다 버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다 버리느냐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대상을 수용하면서 넓어지겠지요. 이 끝없는 마음을 어떻게 쉽게 비우겠습니까.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저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뜨기 위해서 지는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전에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어요. "지구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그랗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한 예가 있거든요. 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래, 그래!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은지도 모르지." 하고선 그냥 대답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봐도 보는 것이 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듣는 것도 그렇지. 전체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우린 묘한 게 있죠. 이 듣는 것도요, 물속이나 허공이나 이 땅속이나 전부 법망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망도 문이 있어서, 우리가 문을 정하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탁해서 없는 지역도 있고 이랬을 때는 땅속으로 공기를, 나쁜 그 오염을 내뿜기도 할 수 있고 나쁜 공기가 빠지면서 좋은 공기를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자재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발 못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니 첫째,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하고 둘째,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있거든요. 이 도리를 아는 것, 이 도리를 앎으로써 내가 자유스럽게 이 마음을, 씀씀이를 보고 용도에 따라서 차분차분히 내가 해 나가는 데는 아주 다양하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허무한 생각이 안 들어요. 허무하긴 왜 허무합니까? 뭐가 허무합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수만 가지 내는, 마음을 내는 법이 없습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내 몸이 없습니까? 왜 허무합니까? 순간순간 옷이 더러우면 벗을 뿐인데. 저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뜨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새로이 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찰나에 뜨고 한 찰나에 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찰나예요. 미륵도 한 찰나지 미륵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져서, 이미 해가 져서 다시 돌아와서 뜰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륵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한 찰나입니다. 돌고 안 돌고 이거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지어 놓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뿐이지 항상 여여하고, 항상 영원한 오늘이면서 항상 이렇게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모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고를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칼산지옥을 안 가지고 다닙니까, 오간지옥을 안 짊어지고 다닙니까? 모든 살아나온 습에 의해서 그 잠재의식에 그냥 얽히고설켜서, 카세트에 모두 감겨서 각본대로 그냥 쩍쩍쩍쩍, 구르는 대로, 도는 대로 착착착착 나오니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착착 나오는 대로 각본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오묘한 이 뜻을,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이 옷을 벗을지 그것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앞뒤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회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동시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근래에 보면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큰스님들도 많이 그러시고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을 비우자는 것은 욕심을 버리자는 얘긴데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만 문밖만 나가서 물질만 딱 보면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길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지금요, 마음을 비우라 하기 이전에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모르십니까? 본래 비워져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비었습니다. 자기의 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재산도 모두가. 여여하게 쓰십시오. 여여하게 사랑하고 여여하게 쓰시고 여여하게 그냥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가 되어 봤어야, 그것도 이름해서입니다. 부처가 되어 봐야 보살이 될 줄 알고 보살이 될 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참 사람이요,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신도 자기요, 보살도 자기요, 부처도 자기요, 중생도 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 태초의 모습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 오장육부의 세포를 타고 자기의 그 태초의 모습들이 지금 자기 속에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갖은 각색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선장으로서 한생각을 내면서 들입다 지금 여여하게 뱃놀이를 하고 가는데 "흥!" 소리는 못 지르나마, 노래는 하지 못하나마 왜 여여하게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놔라" 하기 이전에 놔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 지금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잔뜩 끼고 있어서 그렇지, 그건 여러분의 탓이에요. 그냥 돼 있는 건, 여기 지금 오실 때에도 그 발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 발자취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왔기 때문에 없는 거지, 아마 발짝 하나 딛는 데 금은보화가, 하하하…, 10억씩 붙어 있다고 그런다면 '아휴! 한 걸음에 10억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도 돈 내는 것도 없고 돈 붙는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태연하게 그냥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실 때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이 들어가십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똥 누러 갔을 때 똥을 누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똥만 마려우면 그냥 뛰어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똥 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금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괴상망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나를 한번 봅니다. 돈이 백만 원이 들어왔든 천 원이 있든 그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개도 받은 예도 없고 준 예도 없습니다. 또 한 예도 없고, 여러분이 나에게 한 예도 없습니다.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집이 이렇게,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게 내 것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과 아내와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것은 바로 동시에 식구들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만 할 수 없으니 그냥 놓으시고 사세요, 그냥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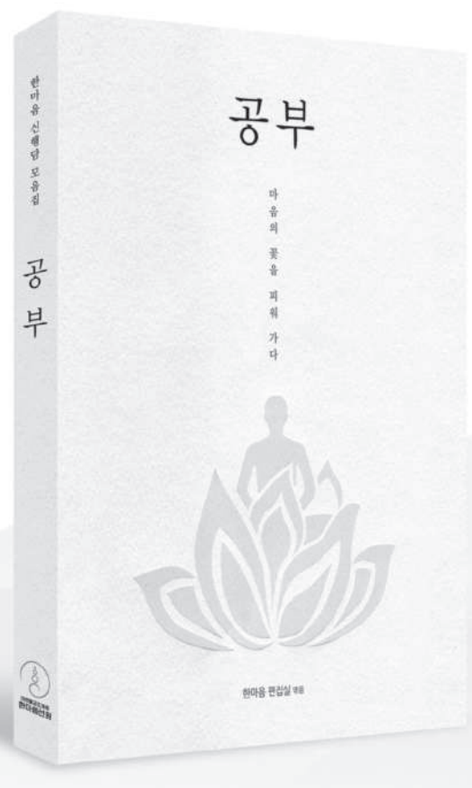
아이 글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의 몸이 자기 몸입니까? 바로 걔네들의 아버지지. 왜 자기 겁니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의 남편이고 그 자식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똑바로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여하게 그냥, 벌게 되면 벌고 못 벌게 되면 못 벌고 이러는 반면에 내가 그대로, 버는 것도 못 버는 것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쓸 때 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우주 천하가 다 내 거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다닙니까? 짊어지고 안 다녀도 그냥 허허지 늘어진 게 바로 나고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리를 꼭 공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아내려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합니까. 낮게 생각도 말고 높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느 신도가 아파서 누웠는데 석존을 뵙고 싶어서 무척 아프면서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도가 그 밑의 제자 스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아무 데에 사는 아무개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게 이렇게 아파서 누웠으면서도, 한 번만 뵙고선 갔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석존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가야지." 하고서 일어나서 가셨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마음을 비우라 하기 이전에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습니다. 가셨는데 이 아픈 사람이 석존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누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드러누우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은 드러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일어나나 그것은 상관이 없다. 단, 네 마음이 그토록 그렇다면 일어나서 그렇게 반겨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진실한 마음이 있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삼배 했느니라." 하거든요. 그 뜻이 무어겠습니까? 우리네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네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묘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말만 들었지 이론으로는 정말이지 저보다도 이 세상에 모두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이론으로서 무불통지하셔서 말을 참 잘하신다 하더라도 못하는 나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아십시오. 열 번, 백 번, 만 번 말을 잘한다 해도, 또 물질적으로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이 무(無)의 참, 두루 법은, 무의 세계의 두루 법은, 이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두루 법은, 두루 모습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행할 때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행할 때에 한 주장자를 탁, 주장자가 동그랗게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사이 없이 가지고 다니다가 주장자를 한번 탁,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딱 들었다 하면 쭉 펴지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에는 우주간 법계에서 다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호응을 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이.

지금 우리 조그마한, 반쪽 된 나라에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부자라면 허허 웃으면서 나물 먹고도 물 마시고 요지로다가 이빨 쑤시듯 참, 반쪽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여여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참,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수 있고 발 없는 발이 길 없는 길을 두루 할 수가 있는 이 묘법을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물질적인 생활로서, 물질적인 과학으로서, 물질적인 공업으로서 이 세상 모두 살아나가는 문제, 경제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한 추에 모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철두철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자비하기도 하지만 사랑,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더럽고 깨끗한 걸 한데 합친 게 자비니까. 이렇게 자비하고 묘하고 이렇게 당당한 도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도리가 바로 여기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말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이론적으로 아는 것, 하늘을 뚫을 정도로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 참자기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문(門)으로 들었다가 한 문에서 나오는 거니 모든 것은 그 나오는 대로 거기에 다시 놓으십시오. 그러면 빈 카세트가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비우는 공부며, 아주 탕탕 그릇을 비우는 공부입니다. 비워야 우리가 항상 집어먹을 수 있고 그저 닥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소리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테죠.

아까 정락 스님도 효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셨지마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길게 늘여서 하는 효도보다는 지금 빠르게 효도하는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가 유무를 같이 균등을 잡아서 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따님이 저기를 가고 또 부모가 어디를 가고 그랬을 때에 앉아서 모시고 갈 수 있는, 내가 모시고 갈 수 없고 또 데리고 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남이 볼 때는 혼자 가는 거지만 바로 일체제불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일체제불이 한 마음에 들어서 보신이 보하고 가듯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기르신다면, 아마 한국에서 외국으로 무역을 해도 손색이 없고, 또 어떤 회사를 한대도 손색이 없고, 정치를 한대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 **우리네 마음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 **그런 묘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든 걸 앉아서, 무의 세계에서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다 해 놓으면서 거죽으로는 보이는 데서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로 자기의 능률이 그대로 나오고, 나오는 대로 씀씀이를 또 다 다양하게 쓰고 또 들이고 쓰고 내고 하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우리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 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질문도 하시면 나도 또 배울 점이 있을 테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한자리에 있을 때는 저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행 한 번 하는 데에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한생각에 저 외국에도 빛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참 능수능란하다면 어디 군사가 없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군사로….

아니, 내가 그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얘기가 길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군인들을 보니까 다리가 떨어진 사람은 다리가 떨어졌다고 알고 있고 팔이 부러진 사람은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자기가, 영령이 말입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체가 없는 것이 무슨 팔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있습니까? 마음이 말입니다. 육신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왜 마음이 떨어집니까? 팔을, 발을 말입니다, 수만 개를 달려 해도 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없이 팔만, 손만 그냥 만들어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하하.

아니, 지금 싸움이 나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위태하다, 정치하는 데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 손만 말입니다, 손만 많이 만들어서 그냥 수없이 갖다가 그냥 전부 펼쳐 놓으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손만 다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몸뚱이 없이도 좋고 눈만, 눈알만 보낼 수도 있고 귀만 보낼 수도 있고 뭐, 손만 보낼 수도 있고 발만 보낼 수도 있고요, 몸뚱이 다 보낼 수도 있고, 다 같이 할 수가 있고, 금방금방 화해서 나투면서 찰나에 장관이 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고, 찰나에 정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찰나에 우주의 생명들이 될 수 있고, 한 찰나에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글쎄요, 마음을 내놓으라면 마음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내놓기도 하고 발을 들어서 그냥 콱 치면서 "이놈아! 이거다, 이놈아." 하고 때리거든요,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좇아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묘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할 땐 자기는 언제나 미약하고 부처가 될 수 없고, 무슨 도는 얼마만큼 가야만 구하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구하기는 뭘 구합니까, 자기한테 있는 건데. 발견해서 쓰라는데도 글쎄, 구하기는 어디서 구합니까? 자기한테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됐고 이렇게 창조가 됐다, 우리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질문자4(남) 아침에 예불을 드릴 때 잠시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오색찬란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오색찬란한 빛을 보고 돌아서서 조금 있으니까 제주도 보살님이 25명이 와 계시대요. 지금도 그런 빛을 한번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큰스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오색이다 이러는 것도 있지마는 백색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청색이 나타날 때도 있고 홍색이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씀씀이로 쓰이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 씀씀이가 쓰이는 건데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색이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오온의 이 진리를 그대로, 색색 가지의 차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오색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느라고 그런 거니까 밖으로 내가 이걸 봐서 '아, 나는 이런 것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위로 올리지 말고 항상 고정되게 마음은 두면서, 예를 들어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중도에다 두면서, 고정되게 두는 게 아니라 중도에다 두면서 항상 이렇게…. 그것도 바로 내 주인공 속에서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전자의 나 나기 이전은 과거의 모든 것을 전부, 쫓기고 쫓고 이러던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나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내가, 나 나기 이전 아비가 지금 현재의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바깥으로 이렇게 우쭐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놔야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빛이나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으라는 소립니다. 아는 건 알고 놓고, 터득을 하는 건 터득을 하는 대로 놓고. 터득은 했을망정 깨달은 건 아닙니다. 언제나 깨달았다고 모두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용어는 좀 더 귀중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꼈다' 또 '그런 걸 과정에서 좀 더 터득을 했다' 이런 말로 씀씀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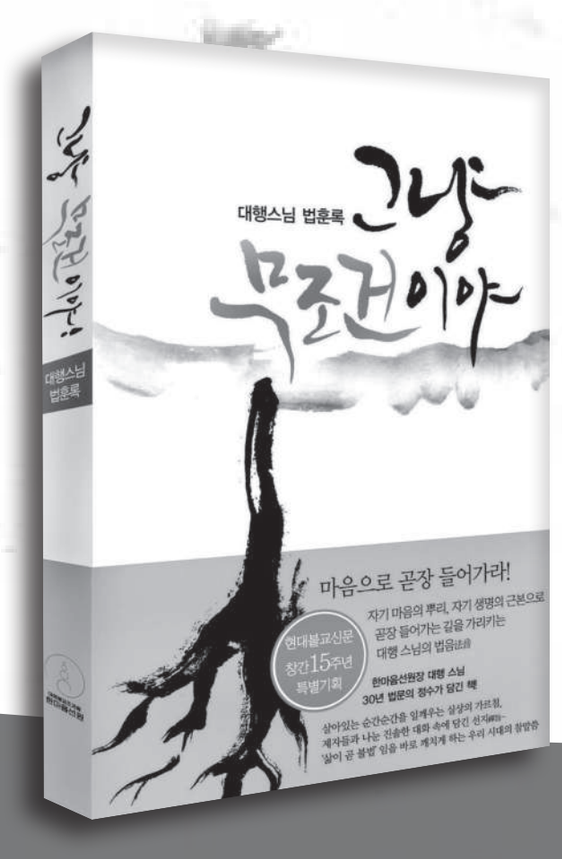
그래서 이것을 안에다 자꾸…, 내가 그랬죠. "세 번 단계 없는 단계가 있다. 첫째, 나를 비우기 위해서, 습을 놓기 위해서 보림을 하고 모든 것을 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놨더니 내가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으니까 내가 그 세파를 헤치고 비바람 모든 걸 맞아 가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놔야 됩니다, 다시.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내가 알았다면, 바로 깨달았다면 나만 깨달은 거지 너와 나와 같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폭을 넓힌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얘길 하죠.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발견했기 때문에 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녹음 안됨) … 또 면벽을 합니다. 면벽이라고 하는 뜻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숙달을 시키기 위한 면벽입니다. 이것이 다니면서도 면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다 또다시 놔 가면서 그거 숙달을 시키죠. 이 숙달을 시키는 건 나는 죽어서 알았는데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죽어서 그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또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숙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너와 나와 둘이 다 같이 더불어 죽었는데 또 너와 나와 같이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같이 내가 하나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그 도리를, 내가 나툼을 모른다면 그거는 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한 세 가지의 도랑 없는 도랑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2인연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사무 사유를 한데 합친 우리의 만법의 기준을, 근본을 우리가 송두리째 알아서 그냥 자재력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야 열반계에 이른다고, 이름해서 그것도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 배꼽놀이를 할 때 배를 탁 한 번 치면 천하가 울고 배꼽 한 번 탁 치면 또 천하를 받칠 수도 있고, 한 번 탁 치면 굴릴 수 있고 탁 디딜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그것이 모두 그런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한두 건에 의해서 쓰는 법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 번 울렸으니까 우리 산회가를 좀 부르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허허.

※위 법문은 1987년 5월 3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승가화합, 소유의 평등부터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승가 양극화 심각" 우려 많아
불평등, 승가화합 위협의 근원

부처님 "평등하게 소유" 강조
가분물, 동등하게 분배해 소유
불가분물은 '공동 소유'토록 해

現 한국승가 소유 원칙 안 지켜
승가공동체 의식 강화 절실해
공공재원 형성, 방편적 고민을

한국 승가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존재한다는 말이 들린다. 계량적,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스님들과 신도들의 체감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우려의 목소리인 듯하다.

이는 승가의 화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승가의 어원인 'saṃgha'의 뜻이 화합임을 상기하면,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상기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보다 더 갖기 위하여 싸움도 불사한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 모두 불화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훨씬 더 그러하다. 경제적 불평등을 달리 표현하면 소유의 불평등인데, 공동체에서의 개인 소유의 차이는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는 탐하는 마음의 주요 요인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소유하게 되면 성내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승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의 불평등은 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주물의 소유 문제는 승가공동체의 화합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집착을 끊으라는 근본적 가르침과 더불어 평등하게 소유하라는 방편적 가르침을 주셨다.

승가의 시주물 중 옷과 음식 등과 같이 개개인이 나눌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은 동등하게 분배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여 현재의 구성원들이 사용하게 하셨고, 정사나 토지와 같이 개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불가분물(不可分物)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과거 · 현재 · 미래 승가에 전승하게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승가에는 가분물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가 하면 불가분물을 개인 소유로 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듯하다. 부처님이 승가의 화합을 위하여 정하신 소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시대에 장소에 따라 달리 행해질 수 있는 율장 조문의 적용과는 관계없이 항상 어디서나 지켜져야만 한다. 전술하였듯이, 소유의 불평등은 승가의 분열인 파승(破僧)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승가의 소유 불평등은 현실적으로 그 해결이 절대 녹록하지가 않다. 특정 원칙과 그것의 실천은 종종 별개의 문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소속의 스님이 입적한 후에는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유언장의 작성을 종법(宗法)으로 의무화하였지만, 스님의 입적 후 개인 명의 재산들이 종단에 귀속되지 않고 외부로 망실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에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승가의 소유 평등 문제는 근본적, 방편적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승가공동체 의식 교육의 강화이며, 방편적 해결책은 승가 공공재원의 형성이다. 승가공동체 의식 교육의 강화란 행자의 초발심 교육부터 비구의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종단 차원에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임을 스님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여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승가가 화합공동체임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소유의 평등이 전제되어야함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가 공공재원의 형성이란 승가 전체의 공유재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스님을 승가의 공유재산으로 보살피자는 취지다. 출가하여 승가공동체의 구성원인 스님이 되었다면, 수행과 포교의 삶에 따른 생활과 노후는 승가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자전거, 지구 살리는 원운동

나는 한 때 자전거에 미쳤었다. 매일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로 산을 넘었다. 자전거를 배운 지 몇 달 만에 경주 안강읍에서 통일전망대까지 400km 가까운 거리를 내 몸을 엔진 삼아 달려가기도 했다.

모두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자전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 '자전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단이지만 지구를 살리는 가장 큰 수단'이라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사상가 이반 일리치도 세상을 구원할 세 가지로 시(詩), 도서관, 자전거를 꼽지 않았던가! 내 두 다리로 페달을 굴려 세상을 구원하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동그란 원운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이후 자전거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자전거 인구는 항시 증가 추세이며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만한 도로와 자전거 보관소,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거나 씻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 베트남 등의 경우 자전거는 생활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자전거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다. 이는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들은 지구의 작은 구성원인 인간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원운동이 '페달링(Pedaling)'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그 움직임은 나날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영국 교통경찰청은 도심에 자동차로 진입하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했다. 그 요금은 커다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경우 5만원, 일반 차량에는 1만 6000원 정도다. 2003년 시행된 후, 도심의 자동차 교통량은 2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가 줄고 자전거 통행량은 66%나 급증했다고 한다. 2011년 우리나라 자동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약 43.2km로 자동차 1대를 온전히 자전거로 대체한다면 하루 약 1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년이면 약 3.6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전거 마니아이자 가수인 김창완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과 나쁜 사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지나친 비약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두 종류의 사람 중 어느 쪽인가? 나는 현재 나쁜 사람 쪽이다.

하지만, 나는 조만간 자전거를 타는 사람 편에 있게 될 것이다. 베란다에서 잠자는 나의 자전거를 깨워야겠다. 아들과 가까운 강변을 달리며 '나를 움직이는 연료는 침묵이요 나의 엔진은 바람이요 나의 경적은 휘파람'이라는 유하의 시, 〈자전거의 노래〉를 함께 읊조려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포교대상 문호 확대에 부쳐

조계종 포교대상의 수상자 폭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불법홍포에 공적이 큰 불자라면 누구라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4일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대상 공적 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며, 후보자격은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 공로상 공적 기간은 10년에서 5년,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취지에서 포교 활동에 나선 이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의 폭이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포교대상의 문호를 타종단에게 개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종파와 세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한 일불제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도반들이기도 하다.

포교 일선의 공로가 있는 불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것에 종단 간 허들을 낮추는 일은 불법홍포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사회는 이제 탈종교사회가 됐다. 명상 수행 등이 저변화됐지만 이것이 불교 입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홍포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과제다. 이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포교대상의 문호 확대가 포교 롤모델의 발굴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동불60년, 불교학생회 부흥 계기로

종립 동국대 학생들의 불심을 이끄는 동국대 불교학생회가 2020년 60주년을 맞아 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그동안의 60년사를 정리하는 〈동불 60년사〉 발간과 함께 전국의 불교학생회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것이다.

상금 규모도 상당하다. 1600여 만원의 상금이 20개 팀에 전달된다. 최근 복원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는 불교학생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활발한 동문들의 활동이 뒷받침됐다. 동문 선배들의 꾸준한 모임과 네트워크 위에 불교학생회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 결과다.

이런 측면에서 동국대 불교학생회가 추진하는 전국 동문 재학생 찬불가 경연대회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찬불가를 그 자리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대회를 위해 수개월간 주기적으로 만나며 부가적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다.

그동안 불교학생회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학생회 동문 선배들과 재학생들의 연결고리가 약했다. 다양한 단과대학에서 모이는 특성상 단과대학 동아리보다 졸업 후 결집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과 선배단 결집도 약한 것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꾸준한 재학생, 동문선배의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는 60주년을 맞아 동문 출신 선배들 중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도 연다고 한다. 이 또한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불교는 도반이 이끌어 간다. 불교 수행과 전법은 도반이 있으면 역량이 배가된다. 동불 60주년을 맞아 향후 불교학생회 선배와 후배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매산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84-152
- 주 지 : 혜양 (속명 : 이교형)
- 승 번 : 1680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dongguk UNIVERSITY

함께하는 동국사랑

동국사랑 1.1.1 캠페인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이 한 달에 1만원 이상 기부하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1인 1월 1만원으로
동국 발전에 참여하세요

◆ 기부자 수

1,111명 (2019년 6월 기준)

◆ 기부 용도

간절한 꿈을 위한 장학금
자기개발, 가계곤란, 공모전 참여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
오픈 라운지, 강의실 및 세미나실 개선 등

◆ 참여혜택

성명 등재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 기부자 성명 등재

학교 소식지 발송
주간동국소식 문자, 정기 뉴스레터 등

연말 감사패키지 발송
학교달력, 연하장, 기념 스티커 등

기부금 세제혜택 제공

◆ 전화 가입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02-2260-3300

우측 QR코드 스캔 후
스마트폰으로 가입

‘마음쉼터를 가다’

⑤ 극락사 수월관음명상센터

생활명상, 현대인 삶 속으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瞑想)은 현대화된 삶의 강력한 무기

21세기는 격렬한 변화의 시대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이제까지 없었던 급격한 변화와 예측불허의 돌발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현시대는 격동의 시대입니다.”

필립 코틀러(Phillip Kotler) 美켈로그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현재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우리 삶의 여러 면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 나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타다’ ‘직방’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택시’와 같은 기존 시장은 점점 축소된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편리함과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어제의 직장이 오늘 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빠른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는 어디서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매일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직면한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자기 내면에 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비즈니스 명상 등 현대화된 명상 보급

7월 7일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극락사 수월관음명상센터를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가장 현대화된 명상수행법을 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극락사 수월관음명상센터는 1968년 4월 10일 건립됐다. 망우동은 태조 이성계가 ‘절골’이라 이름 붙인 곳이다. 극락사 주지 수월 스님은 여기서 2010년부터 명상대학을 개설, 마음치유 지혜명상 강좌를 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명상수행법의 구성이다.

수월관음명상센터 명상대학에서는 자비명상, 긍정명상, 감사명상, 호흡명상, 학업성취명상, 차명상, 음악명상, 산책명상, 심리치유명상, 우울증치유명상, 성격개조명상, 습관교정명상, 비즈니스명상, 직장생활명상 등 현대 생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명상을 매주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비즈니스명상과 심리치유명상의 이론과 실습이 진행된 날이기도 했다.

무더위를 피해 삼삼오오 모인 30여 명의 대중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스님의 강연을 경청했다.

수월 스님은 PPT를 통해 먼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과 명상에 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일맥상통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가치관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첫 관문이라고 한다. 비전은 삶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기에 나 자신만의 것이다. 그리고 내 내면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명상에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듯 비즈니스를 앞두고도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 비전과 사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3〉

B4 책세상
이지형의 〈부엌에서 지중해를 보았다〉

B5 문화
전국 사찰 · 지역 연꽃축제 개막

B6 학술
두부로 살펴본 진관사 역사 · 문화



극락사 수월관음명상센터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산 공원 옆에 자리해 있다. 넓은 숲과 연계한 수행공간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론 수업 후 명상 실습을 하는 대중들의 모습.



사찰 옆 데크 길을 걷는 대중들.

망우산 공원 연계한 자연 속 힐링 공간



PPT를 활용해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수월 스님.

수월관음명상센터 명상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심리치유명상지도사 1,2급과정
자격증 취득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진행
명상의 자세, 방법 등 강좌 외
감사명상, 위빠사나명상 등 진행
단전호흡, 선체조 강좌 병행

(02)434-1717

'극락사 수월관음명상센터'

B1면에서 계속

현대화된 응용명상 보급
비즈니스 · 심리치유명상 등
50여 개 응용수행 교육
이론 · 실습 병행 인기
망우산 공원, 포행길 구성
유튜브 통한 청년세대 전법도

수를 세며 자연스럽게 평정심 찾는다

스님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요한 마음, 평정심이라고 설명하며 그 마음에 들어가는 방편을 '육묘수행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숫자를 세며 일반 대중도 쉽게 호흡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단계는 수상응문(數相應門)이다. 스님이 설명한 수상응문에서 수(數)는 호흡을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세는 것으로 이와 함께 호흡을 함께 세는 것이다. 호흡에 집중이 되면 심란했던 마음이 조용히 다잡아지고 그 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었던 수가 사라진다. 또 평정심이 찾아오며 호흡을 세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수상응문(隨相應門)이다.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마음과 호흡이 저절로 조절돼 마음의 양상이 미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스님은 "여기서 수(隨)는 호흡을 따르는 법에 의거하여 닦아 익히는 것"이라며 "마음과 호흡이 서로의지가 되어 뜻과 생각이 즐거워지면 이 단계 말미에서는 호흡을 따르는 것 또한 거추장 스러워진다. 이때는 수를 버리고 지(止)를 닦는다"고 전했다.

다음 단계인 지상응문(止相應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다. 앞서 마음에 집중하게 한 수(數)와 수(隨)까지도 여의고 모든 마음이 깨끗해지는 단계다. 몸과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선정 가운데 안과 밖의 형상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스님에 따르면 지(止)의 단계에서는 세가지 법이 있다. 마음을 제어하는 지법(制心止)으로 대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그치고 몸과 마음이 사라진 듯 선정에 들어간다. 스님은 선정법으로 마음이 자유자재로 동요함이 없게 되면 이제야 관법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듯이 대중들은 필기를 해갔다.

네 번째 단계는 관상응문(觀相應門)이었다. 이 단계서는 지를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환상응문(還相應門)으로 관을 버리고 환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으로 관이 일어난 곳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관조차 없는 경지에 돌아간다해서 환관으로 이름붙여졌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정상응문(淨相應門)으로 삼계의 일체 더러움이 모두 없어진 경지로 중생이 공하다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다.

스님은 "이 단계까지 가면 저절로 삶 속에서 번뜩이는 지혜가 나온다"며 "많은 사업을 하는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밖에서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일은 그 일을 진행한 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명상을 통해 조용히 관조하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게 된다. 모든 일의 이치가 그렇기에 사업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스님이 진행하는 강의의 마지막은 유쾌했다. 멋진 요트부터 호텔, 음식 등의 사진이 연이어 나왔다. 스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모두 드렸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 사업의 성공도 마음에 달려있으니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가족관계, 자녀교육 등 응용명상

이어 대중들은 실습에 들어갔다. 열심히 필기한 내용을 옆으로 잠시 치우고 30여 분간 좌정에 들었다. 명상 가이드 실습으로 삼매에 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무더위를 날리는 선풍기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가운데 좌정에 드니 이내 그 소리마저 사라졌다. 스님이 설명한 대로 수를 세며 수까지 여의는 단계에 이르자 마음이 몸 밖에 미쳤다.

장애를 앓고 있는 덕산 이도우 씨는 이날 명상 강좌를 듣고 마음이 편한해 졌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지난해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었다. 음식맛도 모를 정도였다"며 "조용한 게 좋아 우연히 사찰을 찾았는데 스님께서 명상 수행을 권하셨다. 불편한 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앉아서 하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감로행 문영희 씨는 극락사에 25년간 다닌 오래된 불자다. 문 씨는 "스님께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들도 함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좌의 마무리는 스트레칭으로 끝났다. 명상 수행 후 기체조와 병행한 마무리 수행도 다른 명상센터와 다른 부분이다.

명상 강좌와 실습을 마치고 수월관음명상센터 주변의 숲에서 대중과 스님은 잠시 포행을 했다. 망우동 나들이 공원 안에 있는 극락사는 공원산책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걷기명상길 등을 구성하고 있다.

수월관음명상센터서 진행되는 다양한 명상은 기본적인 심리치유 생활지혜명상 수행을 활용한 응용명상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동국대 석 · 박사 학위 취득 이후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스님의 적극적인 응용 의지에 탄생한 것이 50여 개에 달하는 강좌였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일반적인 불교수행이 아닌 명상이란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스님은 "선방에서 수행만 하던 이가 산에서 나와 이렇게 명상센터까지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생활명상이란 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스님은 기본 심리치유 명상수행법을 정립하고 이에 근간해 다양한 생활지혜명상 강좌를 전개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수월관음명상센터 채널과 BBS불교방송 강좌를 통해서도 생활명상법을 전하고 있다.

"결국 듣는 이, 수행하는 이들이 얼마만큼 느끼는 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듣는 이들이 못 알아 듣는다면 소용이 없죠.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응용분야입니다. 생활 속에서 불자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마음수행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 가야 합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미얀마 선원서 '지계의 삶' 배우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⑬ 빠옥 총림에서 생활 〈3〉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집단 좌선을 위해 선방을 오르는 길. 흰 대리석 계단이 높기만 하다.

생활 중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팔재계의 불음(不淫)과 오계의 불사음(不邪淫)의 차이를 알았다. 원어도 다르다. 어제 빠옥 총림에 도착해 곧바로 주지 스님 사무실(Sangha Office)에서 입방절차를 행했다. 주지 스님은 나에게 삼귀의와 오계와 팔재계를 빠알리어로 선창하며 따라하게 했다. 익숙한 예경문이기에 잘 따라하니 반색한다.

원래 포살일은 출가비구가 매월 2회인데 비해 재가자는 4회이다. 날짜로는 8·14·15·23·29·30일로, '육재일(六齋日)'이라고 이름한다. 여덟 계에 따른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8재계(八齋戒)'라고도 한다. 날짜로 6일처럼 보이는 것은 14·15일과 29·30일 때문인데 실제로 한 달에 4일정도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의 역법 상 보름을 기준으로 할 때 14·15일과 29·30일 가운데 월별 따라 날짜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원에서 재가자의 팔재계는 그대로 포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 스님 따라 낭송한 오계의 불사음계 원문은 "Kāmesu micchācārā veramaṇī sikkāpadaṁ samādiyāmi"이고 팔재계의 불음은 "Abrahmacariyā veramani sikkhāpadam samādiyāmi"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선원장 스님께서 팔재계를 주실 때 속으로 미얀마에서는 "Kāmesu micchācārā"를 "Abramacariyā"로 쓴다로 생각하였다. 건성으로 양자를 동의어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주지 스님에게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힘주어 차이를 설명해 준다.

오계의 불사음은 합법적인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허용하고 그 외의 성관계는 금지한 반면 팔재계는 배우자를 포함한 일체의 성관계는 금지한 계라는 것이다. 순간 스스로의 무지함을 자책하는 탄식이 나왔다.

일전 인도에서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리산 실상사에서 동국대와 다른 대학의 불교전공자들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나와 故안옥선 교수가 초기불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서 'abrahmacariyā'를 '성욕 단절'로 설명하는 발표를 하였더니 참석한 불교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강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한문으로 범행(梵行) 또는 청정행으로 옮겨져 구체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오래 전부터 인도 고대문헌을 통해 이 말의 쓰임새를 잘 파악하고 있어 자신하고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 일단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기억이 난다. 학회에서는 당연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불교가 얼마나 생활불교와 멀리 떨어져 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즉 팔재계는 매 반월을 기준으로 8일·14일·15일이어서 육재일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 달 4번의 포살일로 계산된다. 재가자가 사찰에 가서 그날만큼은 출가자와 같이 오계를 넘어 추가된 세 개의 계로서 여덟 계율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특별정진이다. 이 같은 재가자의 포살은 초기불교 이래의 재가자의 수행정진일이다.

이전에 교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논문에서 현재 7일 주기의 휴일인 일요일에 재가자의 특별수행일 복원 시행을 제안한 적도 있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한 3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한 번도 팔재계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미얀마 수행처에 와서야 마하시 선원과 빠옥 총림에서 처음으로 재가자로서 팔재계를 받아본 것이다. 직접 생활 속에 부딪힘으로서 팔재계의 의미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안 것이다.

며칠 뒤 양곤의 쉐오민 선원에서 위빠사나 공부를 하고 온 젊은 요기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한국의 빠옥 총림지부(2011년)에 〈예불문〉 자료집에서도 팔재계를 불사음(Kāmesu micchācārā)으로 옮겨놓았음을 보았다. 그리고 잘못된 성관계와 삿된 음행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팔재계의 불음은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계행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생활불교 차원에서 팔재계와 함께 특별수행 기일을 지키는 전통이 있었다면 마땅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학과에서 〈계율론〉 강의를 수강해도 이 같은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는 없었다. 주지 스님이 특별히 설명을 해 주는 이유는 이전의 한국인 요기가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가 팔재계 포살은 1달에 4회
불음계 지키면서 특별정진 시행
韓도 일요일을 정진일 지정해야

不淫과 不邪淫 차이점 알게 돼
불사음은 배우자와 성관계 인정
완벽한 성욕 단절은 불음 해당

오늘은 빠옥 총림에 도착한지 셋째 날(2012년 1월 24일)이고 미얀마 수행처는 42번째 날이다. 휴대폰 알람으로 새벽 3시30분에 맞추고 눈을 붙였으나 잠들지 못했다. 심신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간밤 한국 스님들과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어 피곤한 탓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간단히 씻고 함께 방을 쓰는 스페인 요기와 선방에 올랐다. 자리를 정해주는 스님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내 태도에서 신입생인줄 알았는지 어느 한 스님이 자리와 방석 등을 친절하게 준비해줬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선방 바로 아래 개인 처소의 스님이다. 오늘 다시 자리를 배정해주는 스님을 찾아 자리 문제를 확실히 하려했으나 찾지 못하고 대신 엊그제 보았던 한 스님이 모기장 등 칠판에 이름 적는 문제 등을 가르쳐줬다.

새벽 참선 중 여기저기 온 몸이 간지럽다가 드디어 손바닥까지 간지럽고 빨갛게 붓는다. 언젠가 상좌부로 출가한 한 스님이 빈대와 벼룩이 많으니 방석을 비닐로 감싸 벌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충고가 떠올랐다. 자리가 확정되면 하려했는데, 처소에서 스페인 요기에게 이를 말하자 방석을 바꾸라 조언해 준다. 그리고 침대를 가리키며 보라한다. 우리 방 침대 사방 끝을 투명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이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침대 바닥 판자 사이사이를 모두 투명 테이프로 발라놓았다. 빈대·벼룩이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처리해 놓은 것이다.

오전 참선 후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외국인 사무소에 외국인 스님들과 재가자가 줄 맞추어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뒤에서 들으니 수행 점검의 스님은 체구는 그리 크지 않는데 영어로 하는 말이 조용하면서도 울려 퍼졌다.

내 차례가 되어 삼배를 하자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이라는 답에 목적을 묻자 "빠옥총림의 선법을 배우고자 왔다"고 답했다. 이에 스님은 "빠옥 총림의 특별한 선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빠옥은 단지 지명과 관련해 붙여진 스님의 이름이고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선법을 지도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빠옥 총림의 선법은 없다는 것이다.

"〈청정도론〉을 아느냐"는 스님은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안다고 답하니 여기서 행하는 법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바탕하고 있음을 스님은 역설했다. 계속해서 여실지견은 삼매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삼매의 사마타를 강조했다. 내심 잘 찾아왔다는 기쁨이 일었다. 이는 내가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파악한 지관차제의 문제로 나 또한 논문과 토론에서 특별히 강조해 온 바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전에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해보았느냐"고 물었다. 위빠사나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에 인도에서 고엔까(Goenka) 선원과 직전에는 마하시 선원에서 해보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빠사나 수행 시에 앉는 법에 대해 지도해줬다. 나의 체형에 따른 것인지 스님은 결가부좌보다는 반가부좌를 권했다. 계속해서 나에게 한번 앉으면 얼마 정도 지나 통증을 느끼는지를 물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느낀다고 답했다.

스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그럴 경우 다리를 바꿔 앉거나 평좌로 앉되, 앉는 부분을 높여 비스듬하게 앉으면 오래 앉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 스님의 이런 조언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최근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에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도 오래 앉아있기 위해 신체 하중 역학을 요모조모 적용하며 터득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다음 단계로 스님은 고엔까 방법과 마하시 방법에 견주어 이곳의 호흡수행법을 지도해줬다. 고엔까나 마하시와 달리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호흡을 하면서는 다른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보거나 알아차리려하지 말고 아예 무시해 버리라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마하시 선원에 있을 때 알아차림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할 때 집중(Sam□dhi)이 되더냐"고 물어봤다. 나아가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려 말고 오로지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코끝부위 또는 인중 부위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줬다.

초기경전과 〈청정도론〉 등의 상좌부 주석서에 나오는 호흡법이다. 이 지도법을 통해 확실히 빠옥 총림은 다른 수행처와 달리 사마타와 삼매를 기본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머물 것이냐"고 물어 "약 한달 정도"라고 답하자 "인터뷰에 항상 참석하라"고 독려했다.

이후 삼배를 하고 뒤로 물러나왔다. 이곳에서도 마하시 등의 미얀마 수행처처럼 요기는 정해진 스님과 1대1로 공부를 점검받는다. 마하시 선원은 선원장 스님이 직접 한 명 씩 지목하며 질의 응답한 반면에 여기서는 입실의 순서로 차례차례 이루어진다. 또한 많은 대중이 모여 있기에 수행 점검 인터뷰는 여러 스님들이 맡아서 한다고 한다.

오전 인터뷰를 마치자 점심 공양시간이 됐다. 사찰 내에서 탁발이 이뤄졌다. 줄 맞추어 배식을 받았다. 아침에 주는 대로 모두 받았더니 음식양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찰 문화로 받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다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불렀다. 점심을 거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요식행위라도 하고자 몇 가지만 조금 받아서 들었다.

오후 1시부터는 집단 좌선 시간이다. 같이 방 쓰는 요기와 선방에 올라갔다. 선방은 거처로부터 4~5분을 도보로 가야한다. 스님들 처소를 지나 산 중턱에 큰 규모로 지어졌다. 선방에 오르기까지 흰 대리석 계단이 상당히 높다. 다음에 세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흔히 오른쪽 통행표시가 되어있으나 이상하게도 선방에 오르고 내리는 곳은 반대로 되어 있다. 올라가면서 높다하니, 스페인 요기가 열반의 경지는 이처럼 힘들게 올라 성취하는 것이라 말을 받았다. 이 말에 같이 웃으며 함께 선원의 계단을 올랐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7/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대사/윤현로	운주사	6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3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8	사찰의 비밀 (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앤북스
4	요가 디피카	B.K.S.이행가/현천스님	선요가	9	보살핌의 경제학	달라이 라마 외	나무의마음
5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10	새롭게 열린다 붓다의 시대	김재영	동쪽나라

부엌에서 날마다 '禪' '觀'을 한다?



부엌에서 지중해를 보았다

이지형 지음/최청운 그림/디오네 펴냄/1만 3천원



〈금강경〉 메시지에 공감해 요리 시작

음식 이야기에 감성 더한 '푸드 에세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부엌은 한국 남자들에게 익숙지 않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TV 방송서나 일반 가정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 바야흐로 부엌은 이제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조금은(?) 평등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부엌에서 지중해를 보았다〉의 저자 이지형은 푸드칼럼니스트이다.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처럼 그의 일상도 비슷했다. 직장서 일하고, 일과 후에는 사람들과 술 한 잔 걸치고, 주말이면 소파서 피곤함을 달래고 TV와 친구하고 등등. 그랬던 그가 어느 날 TV를 끄고 거실 소파를 떠나, 식탁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이 제자 1250명과 함께 있다가 밥때가 되자 제자들을 이끌고 발우를 든 채 성으로 들어가 밥을 얻었다. 그리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밥을 먹었다. 옷과 발우를 거둔 후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니……."

바로 〈금강경〉 때문이었다. 저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진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곳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일상"이라는 〈금강경〉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한 손에 식재료, 한 손에 칼을 들고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음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상이 되었고, 부엌은 저자에게 신비한 공간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알아차렸다. 부엌에서도 삶의 위로와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제 일상서 기분이 가라앉을 땐 색이 고운 음식을 만든다. 거기서 끝났다면 이 책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조용히 살피고 찬찬히 맛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와 감성적 영감들을 적어 내려 갔다. 이 책은 그간의 결과물들을 한 권으로 모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푸드 에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에서 소개된 음식과 재료들서 느끼는 저자 특유의 감성적 조각들을 쭉 펼쳐 놓으면 어메리칸 퀼트처럼 형형 색색이다. 이 책에는 미역과 홍어, 도다리쑥국과 샐러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리와 음식(술도 포함)을 통해 달고 시고 쓰고 짠 우리네 삶과 세상을 여여히 관조하는 음식 이야기와 감성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가 찬찬히 관조하며 음식에 감성이란 양념을 가미했듯, 책을 읽다보면 감성의 과식에 빠져 책 제목처럼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부엌은 저자에게 음식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거처가 되었다. 그는 부엌을 통해 다른 세상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황홀함을 맛본다. 그래서 날도 채 밝지 않은 코발트 빛이 짙은 새벽, 밤새 인적 없던 적막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자는 깊은 산속을 헤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슬 맞은 대나무 잎들 파르르 흔들리는, 단아한 숲의 끝자락에 자리한 산사(山寺)를 향해. 그곳에서 저자는 날마다 선(禪)을 맛본다. 칼과 도마와 냄비와 프라이팬을 차례로 바꿔 들고, 갖가지 식재료를 씻고 썰고 익히면서 세상을 관(觀)한다. 이 책은 그렇게 나온 요리 주변과 전후의 이야기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임성한 드라마 작가는 추천사를 통해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고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극한 모성으로 아들에게 정성 음식을 만들어 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본받아,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차려 주고 출근하는 아빠의 속 깊은 사랑.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엄마의 밥상이 그리워지고 영혼이 위로되는 책이었다. 나에게는"이라고 밝혔다. 책 표지 만큼 글 내용도 예쁘다. 여기에 최청운의 감각적인 일러스트도 한 몫 한 것같다.

▲저자 **이지형** 푸드칼럼니스트는?

매일경제신문에 〈이지형의 식탁정담〉, 주간조선에 〈맛기행〉을 연재했다. 100쪽 남짓 분량의 주담(酒談) 〈소주 이야기〉를 썼다. 에세이집 〈주역, 나를 흔들다〉와 〈강호인문학〉, 〈끝에서 시작하다–시베리아에서 발트까지〉 등이 있다.

3.1운동 속 인물들 소설로… 법계문학상 수상작



푸른별의 노래

이종숙 지음/얘기꾼 펴냄/1만 3500원

"세상에는 큰 뜻을 품은 이름들이 많으나 그대에게는 벽성이 어울리지.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세운동에 나서 한쪽 팔을 바쳤고 개인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네. 평등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백정들도 도왔지. 그대가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네.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 중 왕성하게 빛나는 푸른 별과 같은 존재, 그대가 벽성일세"

벽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고향 후배로 두 스님은 어린 시절을 고향마을에서 함께 보냈다. 벽성은 용성 스님이 고향 후배를 자신의 상좌로 받아들이면서 내린 법명이다. 벽성은 은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태극기 그리는 일로 독립운동을 한다.

이 책은 1920년대서 194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육운동가 김효인은 만세운동 과정에서 한쪽 팔을 잃고 방황하지만 친형제처럼 지낸 상규(용성 스님)를 만나 새롭게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강포한 일경의 총칼 아래서 태극기를 그리며 청년구국단을 이끌던 효인은 계를 받아 벽성(碧星)으로 다시 태어난다. 푸른 별이 된 그는 밀양에서 상경한 상좌 혜득과 백정의 아들 덕신, 소작농에서 도시 빈민으로 추락한 초옥과 희옥 등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유통점과 양행을 운영하는 구국단의 국내와 만주의 활동을 통해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제3회 법계문학상을 수상한 이종숙 작가〈사진〉의 첫 장편소설 〈푸른 별의 노래〉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잊고 있던 역사의 현장과 잊힌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소설을 쓰는 중에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간과 맞닥뜨렸다. 소설은 처음으로 돌아갔다. 고난의 역사를 견디며 살아온, 표나지 않지만,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저항했던 평범한 사람들, 형평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또한 그 거대한 혁명 속 주인공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애썼다."고 고백한다.

남지심 소설가도 추천평을 통해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난 100년 후인 올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소설로 조명한 최초의 작품인 〈푸른 별의 노래〉가 출간돼 의미가 깊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벽성 스님이다. 그는 은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태극기 그리는 일로 독립운동 하며 실제적으로 민초들을 지휘하는데, 책 속에서 제 각각 역할을 맡은 민초들의 독립운동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며 "그러면서 불교계 전체의 독립운동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넓게 조명된다.

이 소설의 무대는 한반도는 물론 만주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불교계가 독립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전모를 알게 된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종숙**은?

1964년 경기도 용인서 태어나,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단편소설 〈모크샤〉가 〈불교문예〉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저서로는 인문학 여행기 〈오늘은 경주〉 가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바야흐로 시방은 연꽃세상

전국 사찰 · 지역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등 도심사찰 화장세계
공연 · 체험 등 다양한 부대세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서울 조계사는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제5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개최한다.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불리는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 때부터 등장하는 불가(佛家)의 꽃이다. 경전 곳곳에 등장하는 연꽃은 피고 지고 머무는 모습에서 많은 불가적 의미와 상징을 머금고 있어 존재 자체가 설법이다. 아쉬운 것은 모든 꽃이 그렇듯 연꽃 역시 피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방은 바야흐로 연꽃이 피는 화장설법의 계절이 시작됐다. 법당 대신 연밭을 찾아 연꽃이 품은 설법을 찾아듣는 것도 이 시절에서는 현명한 신행이 될 듯하다. 전국의 사찰과 지역에서 연꽃축제가 시작됐다.

△**서울 조계사**는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제5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개최한다. 572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대중을 맞는다. 이번 연꽃축제는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신주욱 작가의 연꽃화분 그림 26점도 함께 전시되어 백중의 가르침을 새기는 연꽃축제다.

△**서울 봉은사**는 9월 중순까지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500여 개의 연꽃화분으로 도량 곳곳을 장엄하여 마련한 봉은사 연꽃축제는 도량을 찾은 대중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하고 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꽃화분으로 이어지는 길과 길은 도심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선사한다.

△**서울 봉원사**는 8월 3일 봉원사 영산보존회의 시연을 시작으로 제17회 서울연꽃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봉원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봉선사 경내와 특설무대에서 제17회 봉선사 연꽃축제 '연꽃 위를 걷다'를 개최한다. '숲과 함께 행복과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등 전시, 먹거리 직거래 장터,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된다. 2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식전 공연에서는 가수 장윤정, 소찬휘, 임영웅, 국악인 박애리가 출연해 공연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17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와 오후 5시부터는 BBS불교방송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그림그리기 부문에는 유치부와 초등부(1~3학년)가 참여하고, 글짓기 부문에는 초등부(4~6학년), 중등부(전학년), 고등부(1~2학년)가 참여하고, BBS불교방송 특별 공개방송에는 추가열, 양하경, 권미희가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전북 김제시 청운사**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18회 하소백련 축제를 개최한다. 약 1만㎡의 청운사 연지는 백련으로 유명하다. 12일부터 14일까지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의 화천수를 주제로 그린 탱화도 선보인다.

△**부산 삼광사**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제6회 효문화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삼광사는 연꽃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8월 18일까지 물과 꽃의 정원에서 2019년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 외에도 라이트아트, 흙인형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작가들과 함께 연꽃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스탬프투어, 인증샷 이벤트,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부여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제17회 부여서동연꽃국제 '궁남지 사랑, 연꽃의 빛을 발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말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연꽃 개화 시기 동안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주제로 한 제23회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 공연에는 송가인 박현빈 등이 출연한다. 축제 기간 동안 무안요리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연꽃 어린이 독서골든벨, 연꽃 유리온실 수석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불교와 함께해온 장흥 역사

특별전 '길이 길이 흥할 땅, 장흥'
국립나주박물관 9월 1일까지


〈월인석보〉 권 25

불교문화와 함께해온 전남 장흥군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과 장흥군청은 9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길이 길이 흥할 땅, 장흥'을 개최한다.

동양 3보림으로 불리는 보림사를 비롯해 장흥군의 역사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이번 전시에는 〈월인석보〉 권25(보물 제745-9호)를 비롯해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25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장흥 지역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장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으며, 그 중 △2부 '찬란한 불교문화와 장흥의 탄생'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보림사, 천관사 등 고찰과 관련된 불교문화재, 공예태후의 부군 인종과 아들 명종의 무덤에서 나온 문화재, 그리고 고려시대 장흥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선보인다.

1995년 보림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개고해 합편한 책으로, 석가모니 일대기의 결정판일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다. 또한 당시의 글자나 말(言)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국어사(國語史)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신미 스님을 비롯해 수미, 설준, 홍준 등 당대의 불학(佛學)을 대표하는 선지식들과 유학자인 김수온 등이 참여했다. 책은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은 주석과 같은 형태로 하여 엮었다. 원본이 완전히 전하지 않아 전권의 파악이 명확하지 않지만 30권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12월 보림사에서 제25권이 발견됐다.

앞선 △1부 '바다를 통해 성장하다'에서는 장흥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구석기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신북유적, 방촌리 고인돌을 비롯한 고인돌 유적 그리고 마한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장흥의 지역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대포황천(大布黃千)〉은 기원 전후부터 중국과 한반도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3부 '사림의 고장, 장흥'에서는 조선시대 장흥의 문화를 소개한다. '문림의향(文林義鄕)'의 고장이라는 말과 같이, 장흥은 많은 문인과 지사들이 나온 곳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재가 함께 소개된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장흥 석대들전투를 조명한다.

△4부 '문예의 전통을 잇다'에서는 근현대 장흥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나온 점을 강조하여 한국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문인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유필(보물 제569-7호)도 소개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8월 8일 '고려왕조 장흥을 만들다'와 '장흥의 동학력명과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장흥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061)330-7800.

박재완 기자

박생광 회고전

대구미술관 10월 20일까지

불교적 소재로 미술세계를 구현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낸 박생광 화백의 작품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미술관은 10월 20일까지 박생광(1904~1985) 화백의 회고전을 연다.

박 화백은 모노크롬이 주류를 형성했던 80년대 초에 불화, 민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토속적인 이미지들을 오방색의 화려한 빛깔로 화폭에 담아 한국 전통화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특히 박 화백은 80년대에 이르러 민족정서를 기반으로 한 채색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수묵위주의 한국화단에 채색화의 가치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전통적 불화, 무속, 민화와 같은 형식을 원용하여 강렬한 원색으로 소재를 재구성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세계를 열었다.


박생광 作, 부처 1980

회화와 드로잉 등 박 화백의 작품 162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박 화백이 자신의 화풍을 찾기 위해 분투하며 실험을 시도한 시기의 작업과 '그대로 화풍'의 전개 시기의 작업을 총망라했다. 이를 통해 박 화백의 독창적 작품 정신과 '그대로 화풍'의 전개 과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전시 구성은 박 화백이 집중해서 그렸던 소재와 주제별로 구분하여 그 안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토속적인 한국성과 무속성을 반영하고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박 화백만의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재조명해 그가 정립하고자 했던 미술세계를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두부’ 통해 사찰 역사·문화 살피다

진관사, ‘공덕음식, 두부’ 학술세미나 · 시연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네 식탁에 항상 올라가는 두부. 조선시대 두부는 왕실의 제향 음식으로 이는 조포사(造泡寺)로 지정된 사찰에서 만들어졌다. 두부의 전래와 보급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다. 두부를 통해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주지 계호)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12일 진관사 함월당에서 ‘공덕음식, 두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두부 역사와 보급, 조선시대 조포사로서의 진관사의 역할 등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사찰 중심으로 두부 전래

특히 심승구 한국체대 교양학부 교수는 ‘조선시대 조포사와 진관사’를 통해 두부라는 음식이 진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 눈길을 끌었다.

심승구 교수에 따르면 두부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문인 목은 이색(1328~1396)의 시(詩)에서다. 그는 자신의 문집 〈목은시고〉에 5편의 두부 관련 시를 남겼다. 그중 1365년(공민왕 14)에 이인복과 식사 자리에서 두부를 먹었다는 내용을 담은 시는 현존하는 첫 두부 관련 기록으로, 이색은 두부를 먹는 분위기를 마치 “산승의 거처와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색의 시에는 관악산 신방사 주지가 두부를 대접한 것을 고마워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승구 교수는 “고려의 음식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1123)〉이나 〈동국이상국집(1251)〉에 두부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부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말 사이에 전래됐을 것”이라며 “이색의 시 가운데 관악산 신방사 주지에게 두부를 대접받는 장면은 두부의 도입이 사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고려 말에 전래된 두부는 조선에 들어와서 사찰음식이자 왕실음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조선 초기 두부는 왕실의 제향(祭享)과 공상(供上)의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두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간수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고위 관료도 두부를 제조할 수 있었으나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그나마 사족이나 일반 백성들이 두부를 접할 수 있는 곳은 사찰이었다는 게 심승구 교수의 설명이다.

조선 왕릉과 조포사 진관사

사찰과 두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사적 단초는 ‘조포사’다. 이는 퇴계의 제자 구봉령(1526~1586)의 시 ‘조포사’에서 확인되는 데 그는 괴산의 공림사를 조포사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심승구 교수는 “16세기 세조의 원당인 공림사를 조포사로 부른 것은 국가의 승역체계와 상관없이 사찰음식에서 두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당대인들의 사찰 인식을 엿보게 하는 단서”라고 설명했다.

두부 13~14세기 한반도 전래
시 · 문헌 등에 사찰 두부 기록
진관사, 창릉 · 홍릉 조포사 役
조선 후기 신흥사 조포속사로
‘公’이란 18세기 과제 반영돼

진관사 두부음식 탕 · 적 ‘다양’
제례용이자 대중공양도 활용
신년엔 신도와 두부 나누기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수륙사(水陸社)를 창건하며 국행수륙도량으로 성장한 진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수진궁 묘의 재궁(齋宮)과 서오릉에 속한 창릉과 홍릉의 능침조포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두 곳 왕릉의 조포사 역할은 진관사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겼고, 이는 사찰을 폐사 직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이런 재정 부담이 개선된 것은 정조의 조포사 정비 계획 때문이었다. 순조대에 이르러 진관사는 강원도 양양부 신흥사를 조포 속사(屬寺)로 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심승구 교수는 “당시 왕은 능침포사는 전례가 있으니 허락하되 신흥사가 해당 지역에서 맡고 있는 제반 승역을 면제토록 관찰사에게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창릉과 홍릉의 조포사는 진관사가, 진관사의 조포속사는 신흥사가 맡는 능침 제향 및 수호관리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헌에 나타난 진관사 두부요리

그렇다면 문헌에 나타난 진관사의 두부요리는 어떨까. 심승구 교수에 따르면 진관사의 두부는 〈보한재집〉 〈필원잡기〉 〈용재총화〉 등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신숙주의 문집 〈보한재집〉으로 당시 대식가였던 홍일동 등과 진관사를 찾았는데 홍일동이 포증(泡蒸, 두부찜)을 일곱 사발을 먹어 승려들이 놀라워했다는 내용이 있다.

심승구 교수는 “진관사의 포증은 사찰음식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의 양반가에서도 즐긴 음식이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포증은 15세기 사찰을 비롯한 사대부가에서 퍼진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포사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했을 조선 후기 당시 진관사 두부 요리는 제향음식으로 탕(湯)과 적(炙, 꼬치구이)으로 만들어졌다. 탕은 전증(煎蒸) · 백증(白蒸) · 잡탕(雜湯)으로 구분돼 만들어졌다. 전증과 백증의 차이는 후추 사용 유무이며 잡탕은 복기(卜其)라고도 불렸다.

심승구 교수는 “제향의 두부는 진관사의 조포승 1인이 참석해 만들었고, 제향 하루 전에 도착해 두부를 준비했다”면서 “창릉 제향의 두부음식은 곧 진관사의 두부음식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관사에서 만든 적, 탕과 두부 요리는 왕릉의 제사용이었지만 반드시 사찰에서만 쓰였다고 보긴 어렵고 대중공양용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잡탕의 경우 복기라는 속칭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일반 민가서도 많이 즐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심승구 교수는 18세기 추진된 조선 왕실의 조포사 중건은 ‘공(公)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투영된 것으로 봤다. 그는 “조포 속사의 잇따른 출현은 단순히 왕릉 관리를위해 국가가 사찰을 늘이려는 의도보다는 사찰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지방 사찰 스스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조포사는 유교사회에서 한계는 있었으나 공으로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담긴 개혁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덕음식으로서 두부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사찰음식 명장이자 진관사 주지인 계호 스님은 진관사의 두부요리와 공덕음식으로서의 두부를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진관사는 섣달그믐부터 정월 보름까지 두부 만들기를 이어간다. 진관사는 섣달그믐에는 두부를 만들고 두부소를 넣은 만두를 빚어 묵은 제사와 조왕불공을 한다. 또한 두부를 만들어 신도들과 나눴는데 이는 진관사가 2~3일에 걸쳐 하는 연례행사였다.

진관사의 두부 나눔 풍습은 주요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1930년대 기록으로는 이상억 서울대 명예교수의 증언이 있다. 그의 증조모는 진관사의 대시주자였는데 그 인연으로 매년 섣달 그믐에는 진관사로부터 두부전골을 받았다고 한다. 이 두부전골은 〈서울의 한실-홍문섯골 이벽동댁〉에 소개돼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진관사 사격을 재건하며 불사에 동참한 신도들을 위해 두부 나눔이 섣달그믐부터 정월보름까지 이어졌다.

다만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이여서 1930년대 두부전골과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조리하지 않은 갓 만든 생두부를 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계호 스님은 “1930년대와 1960년대 이후의 관련 기록과 구술채록을 보면 섣달그믐과 정월보름에 햇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신도들과 나누며 공덕을 회향했다”면서 “이는 민간의 세찬 풍습과 유사하며 불교민속적 측면에서는 약 100여 년의 사찰음식 두부 관련 전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관사의 두부는 사찰음식 측면에서 공덕을 외호하는 신장인 제석천과 조왕이 섣달그믐 세시풍속과 관련해 나타나며 이를 맞춰 두부음식을 나누는 공덕의 회향문화를 담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바간’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제43차 총회서 ‘한국의 서원’도 함께

불탑의 도시로 잘 알려진 미얀마 바간(Bagan)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미얀마 바간과 한국의 서원, 이라크 바빌론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간은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로 1000여 년 전 세워진 3500여 개의 사원과 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바간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바간은 만달레이 남서쪽 150km, 이라와디(Irrawaddy)강 동쪽 연변에 있으며 버마족이 11~13세기에 세운 바간왕조의 수도였다. 바간은 북쪽의 올드 바간과 남쪽의 뉴 바간, 냥우 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냥우 지역이며 전통시장이 있다. 올드 바간은 바간왕조와 불교의 주요 유적지가 위치한다.

바간의 3500여 불탑 유적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불교건축의 보고(寶庫)로 슈누파 사원, 석가모니의 일생을 표현한 정교한 그림이 유명한 구뱌욱지 파고다, 주변 조망이 뛰어난 쉐산도 파고다 등이 유명하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서원도 이번 총회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최종 결정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특히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불교 사찰터에 세워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賜額)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은 본래 숙수사(宿水寺)가 있던 곳이다. 조선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1491~ 1553)을 제향한 경주 옥산서원은 정혜사(定慧寺) 인근에 세워졌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불탑 도시 바간의 전경.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⑬ 소서(小暑)
풋콩치자밥 · 깻잎김치 · 오방애호박선

절기 맞는 식재료가 곧 보양식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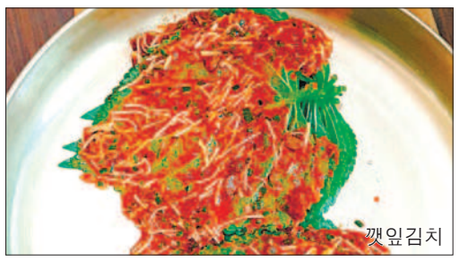
어릴 적 추억의 놀이다. 눈에 띄지 않던 두꺼비가 유독 장마철에 자주 보인다. 젖은 몸 말리고 돌틈 구멍을 찾아들어가는 것을 보니 미물이라도 제 할 일은 알아서 하는 것이 대견하다.

모처럼 햇볕 드는 아침이면 너른 바위 위에 뱀이 몸을 말리려 늘어져 있다. 새끼를 가진 두꺼비는 뱀에게 다가가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앞다리와 몸을 연신 움직이고 혀를 내밀어 약을 올린다. 약 오른 뱀은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그 독에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화가 치밀어 결국 두꺼비를 한입에 삼킨다. 뱀 목구멍에 걸린 두꺼비를 보고 처음에는 황당해서 영문을 몰랐지만 오랜 시간 산에 의지해서 살다보니 뱀 몸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태란습화 4생 중 화(化)생을 알게 된 것이다.

태에 들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모기처럼 물과 습기의 온도만 맞으면 저절로 태어나는 습생과 달리 자신의 새끼를 낳기 위해 뱀에게 잡아먹히는 두꺼비의 눈물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어렵다. 부처님께서 생명의 실상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묘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채전밭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소나기가 구름과 벗하며 자주 내린다.

호박 하나 따다가 된장찌개를 만들고 애호박선도 만든다. 국수고명으로도 사용하는 호박은 여름철 체액조절에 으뜸이다. 애호박의 어린 씨는


풋콩치자밥


깻잎김치


오방애호박선

어린아이들의 두뇌성장 물질인 레시틴이 풍부하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애호박은 잘 익히지 않으면 중풍에 걸리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의보감〉에 나오는 구절이다. 오랫동안 한방을 공부한 필자는 오행의 이치와 식재료의 약성을 눈여겨보며 사찰음식의 품을 키워왔다. 한가지로 보면 모두 단방약의 소재다. 하지만 조리하는 과정에서 양념과 불에 익히면서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다.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가 좋지 않은 어린아이나 병약한 사람은 배앓이나 장염에 걸리기 쉽다.

소서는 치자가 유용한 시기다. 치자는 항산화 물질도 뛰어나지만 천연 방부제이며 항균식품이기도 하다. 옛 어른들은 여름에 치자를 구비해놓고 밀가루부침개를 만들 때 치자물로 물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다. 색깔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호 식품이기에 여름철 자주 사용한 재료다. 치자는 늘 물을 만들어 놓고 밥을 지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환한 치자색은 풋콩과 어울려 맛있는 밥맛을 제공한다. 요즘은 봄빛가득 풋콩이 자라서 가을 수확기까지 여러 콩이 나온다. 단백질 급원식품인 콩은 이 시기 훌륭한 식재료로 빛난다.

때마침 들깨모종을 옮기면서 어린 들깻잎이 지천이다. 농가마다 들깨모종을 넉넉히 식재해서 인심 좋게 나누어 준다. 법당 터를 만들어 놓고 풀이 무성하여 할 수 없이 들깨밭을 만들었다. 모종을 심고도 남은 것은 잘 다듬어 깻잎김치를 만들었다. 김치라는 이름은 풀국인 전분이 유산균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무침이나 겉절이와 다른 맥락이다. 깻잎에 된장양념을 더하여 만든 김치는 장마철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저장음식이 된다.

초복과 중복이 소서에 들어있어서 곳곳에서 보양식 찾아다니는 소리가 요란하다. 사찰음식의 백미는 늘 절기에 맞는 식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드는 일이다. 예전의 가난한 시절 음식이 보약으로 대접받는 시절이 되었다. 절집의 보양식은 대중의 불평을 이기지 못하고 말복 즈음해서 만들어진다.

풋콩치자밥

재료: 멥쌀 2컵, 찹쌀 ½컵, 치자물 2½컵(건치자 5개를 손으로 쪼개 물 3컵에 넣어 불린다), 풋콩 80g, 양념장(집간장2T · 청고추 1개 · 매실효소 1T · 통깨1t)

1. 멥쌀과 찹쌀을 각각 씻어서 불려놓고 풋콩(완두콩, 밤콩, 강낭콩, 호랑이콩 등)도 씻어둔다.
2. 밥솥에 불린 쌀과 콩을 안치고, 치자 우린 물을 부어 밥물을 맞춘 후 센 불에서 끓으면 중불로 줄여 10분 정도 끓이고, 다시 약불로 10분 정도 짓다가 불 끈 다음 뜸을 들인다.
3. 청고추를 곱게 채 썰어 양념장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깻잎김치

재료: 깻잎 150g, 밤 2개, 청고추 2개, 생강 20g, 묽은찹쌀풀 ½컵, 고춧가루 2T, 된장1.5T, 송표간장 1T

1. 깻잎은 깨끗이 씻어 차곡차곡 채반에 건져 물기를 제거한다.
2. 청고추는 곱게 다지고 생강과 밤도 곱게 채 썬다.
3. 된장은 절구에 으깨어서 간장과 찹쌀풀, 고춧가루, 생강, 밤 등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쟁반에 깻잎 두 장 위에 양념장을 바른 다음 그 위에 깻잎을 또 놓고 양념을 바른다.

오방애호박선

재료: 애호박 1개, 밤 4개, 생표고버섯 1개, 당근 50g, 홍고추 1개, 석이버섯 5g, 단무지 60g, 소금약간, 집간장 적당량, 참기름 1t

1. 애호박은 5㎝길이로 잘라 다섯 군데에 칼집을 넣고 소금물에 절인다음 김이 오른 찜기에 잠시 쪄낸다.
2.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소금으로 간을 해서 덖는다.
3. 건표고버섯도 불려서 곱게 채를 썰어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밑간해 덖어낸다.
4. 홍고추도 당근과 같은 크기로 채 썰어 살짝 덖어내고, 밤도 가늘게 채 썰어 팬에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덖어낸다.
5. 석이버섯도 손질해서 곱게 채를 내어 참기름과 집간장으로 밑간해서 덖어준다.
6. 재료준비가 끝나면 쪄낸 호박 사이에 색깔대로 재료를 한 가지씩 끼워 넣는다. 홍고추와 당근이 같이 넣는다. (가운데 홍색, 그 옆에 밤, 단무지, 양쪽 끝 표고&석이버섯)
7. 김이 오른 찜기에서 2~3분간 한 김 쪄낸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⑬ 과민성 방광증후군

1日 8회 이상 배뇨, 방광증후군 의심

이런저런 인연으로 가끔 수험생을 진료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취에 대한 열망이 있겠지만 늘 그 배경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다.

불안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두근거림, 호흡곤란, 식은땀, 잦은 소변, 두통, 복통 등이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증상이 있고, 각각의 불편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식은땀과 잦은 소변 등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변이 일시적으로 잦은 것이 아니라 늘 자주 보고 참기 어려운 것을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고 한다. '자주 본다'는 기준은 깨어 있는 동안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방광의 소변을 배출시키는 근육(배뇨근)의 수축 기능이 너무 예민해져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의 64%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정상적 배뇨근의 수축은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나 노화로 인해 방광과 이를 지배하는 신경기능이 이상을 일으킨 탓이다.

신경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뇌나 척수의 억제 신경 경로에 손상을 입었거나 방광의 구심성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원시 배뇨 반사가 다시 나타나서 배뇨근의 과도한 활동성이 일어난다. 관련된 질환으로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혈관질환, 파킨슨질환 등이 있다. 또한 배뇨근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및 체신경의 불안정성이 방광의 수축 없이 소변이 가득 차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배뇨근의 과도한 수축 활동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외에도 우울증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이 질환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20~40대 여성의 13% 정도가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전체 인구로 보면 성인의 약 12~16%가 이 질환의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상에 대한 수치심으로 숨기고 있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유병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환자의 비율은 다른 배뇨장애 질환인 요실금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잠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들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의절박'이나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잦은 소변으로 인해 장거리 여행을 피하고,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이 심할 수 있다. 또한 성생활 과정에서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소변이 누출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요실금 환자보다 과민성 방광증후군 환자들이 좀 더 심하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나 요실금 같은 배뇨장애에 대해 '사회적 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민성 방광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만성 비뇨기계 질환의 하나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환자의 경우는 빈뇨와 다른 수반 증상들로 인해 만성 질환인 당뇨병이나 고혈압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과민으로 인한 배뇨근 수축
과도한 정신적 긴장, 노화로
방광과 신경기능 이상 원인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와 배뇨일기를 통해 소변을 보는 양상과 증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선한다. 배뇨횟수, 배뇨간격, 배뇨량, 요절박의 횟수, 절박요실금의 횟수 등을 조사한다. 신체검사를 통해 신경 및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변검사를 통해 염증에 의한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시작할 때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의 핵심인 배뇨횟수의 감소와 함께 관련된 다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증상의 만성화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우울, 수면의 질 저하(불면), 성기능 저하 등을 개선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양의약 치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약 치료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침 치료는 최근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근래 보고된 과민성 방광증후군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침 치료는 안전하며, 특히 주간뇨 횟수, 하부요로증상 점수, 요실금 점수 등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침 치료를 이 질환의 기본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화와 관련된 경우에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을 겸하는 것이 더 좋다. 침과 달리 한약은 노화를 억제하고 기력을 강화시켜 배뇨기계와 신경계 및 내분비계의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광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섭취량과 섭취 시간 조절), 카페인 섭취 제한, 변비 치료, 금연, 체중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배뇨일기를 작성하면서 시행하는 방광훈련, 골반근육운동(Kegel exercise), 바이오피드백 등 행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배뇨 간격을 정하고 매시간 이를 지키게 하면서 매주 30분씩 배뇨 간격을 연장하여 소변을 보는 간격을 4시간까지 도달하게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2019년 한마음선원 여름 수련회

지원명	신행회	대 상	주 제	일 시	장 소	기 타
본 원	• 어린이회	초3~초6	내 한생각에 우주가 들썩들썩	7/26(금)~28(일)	광명선원	
	• 학생회	중1 ~고3	파도는 바다를 여의지 않는다	7/19(금)~21(일)	태안	
	• 청년회	청년회 1 부	스스로 갖추었네	7/12(금)~14(일)	광명선원	
광명선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우리는 한가족	8/8(목)~10(토)	광명선원	
	• 청년회	청년	마음의 적멸보궁을 자유롭게 쓰자	7/27(토)~28(일)	오대산 상원사, 정암사	
제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	가을 예정	–	
	• 학생회	중1 ~고3	한 철 영화 속 주인공은 나야 나	7/27(토)~28(일)	제주지원	
	• 청년회	청년	미정	8/3(토)~4(일)	제주지원	
부산지원	• 어린이회	초3~초6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7/13(토)~14(일)	부산지원	
	• 학생회	중1 ~고3	미리 마음 내고 움직인다	8/9(금)~11(일)	부산지원	
	• 청년회	청년	뿌리가 있어 꽃 피고 열매 맺는다	6/28(금)~30(일)	광명지원	
광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다 녹일 수 있다	7/26(금)~28(일)	광주	
울산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마음 꽃 활짝	7/13(토)~14(일)	울산지원	
	• 학생회	중1 ~고3	꽃을 피우는 나무	7/26(금)~27(토)	울산지원	
	• 청년회	청년	change mind	8/3(토)~4(일)	울산	
대구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주인공에 관해요	7/27(토)~28(일)	대구지원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가칭)	8/24(토)~25(일)	대구, 통영지원	대구,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중부경남 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제 나무에서 익어야 제 맛이 난다	7/14(일)	중부경남지원	
진주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행복한 나의 꿈을 찾아서	8/3(토)~4(일)	진주지원	어린이, 학생회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행복한 나의 꿈을 찾아서	8/3(토)~4(일)	진주지원	어린이, 학생회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청년회의 꿈	7/13(토)~14(일)	진주지원	
포항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부처님과 함께 놀아요	7/13(토)~14(일)	포항지원	
	• 학생회	중1 ~고3	–	–	–	수련회 없음
	• 청년회	청년	서라벌, 그 길 위의 정진	8/3(토)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등	
청주지원	• 어린이회	초1 ~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청년회	청년	내 마음 점검 프로젝트	7/12(금)~14(일)	문경지원	
통영지원	• 어린이회	유치부~초6	관하는 어린이	8/9(금)~11(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광주, 중부경남, 청주,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 학생회	중1 ~고3	지금, 여기, 패기 가득, 주인공!	8/2(금)~4(일)	여수	광주, 대구, 중부경남, 통영지원 연합수련
	• 청년회	청년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가칭)	8/24(토)~25(일)	대구, 통영지원	대구, 통영지원 연합수련회

●수련회 일정은 2019년 7월 4일까지 확정된 내용을 실은 것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